



04  
**SPECIAL INTERVIEW**

“문과생 진로 막혀 로스쿨 쏠림…  
인재 미스매치 해소해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홍대식 이사장

10  
**POWER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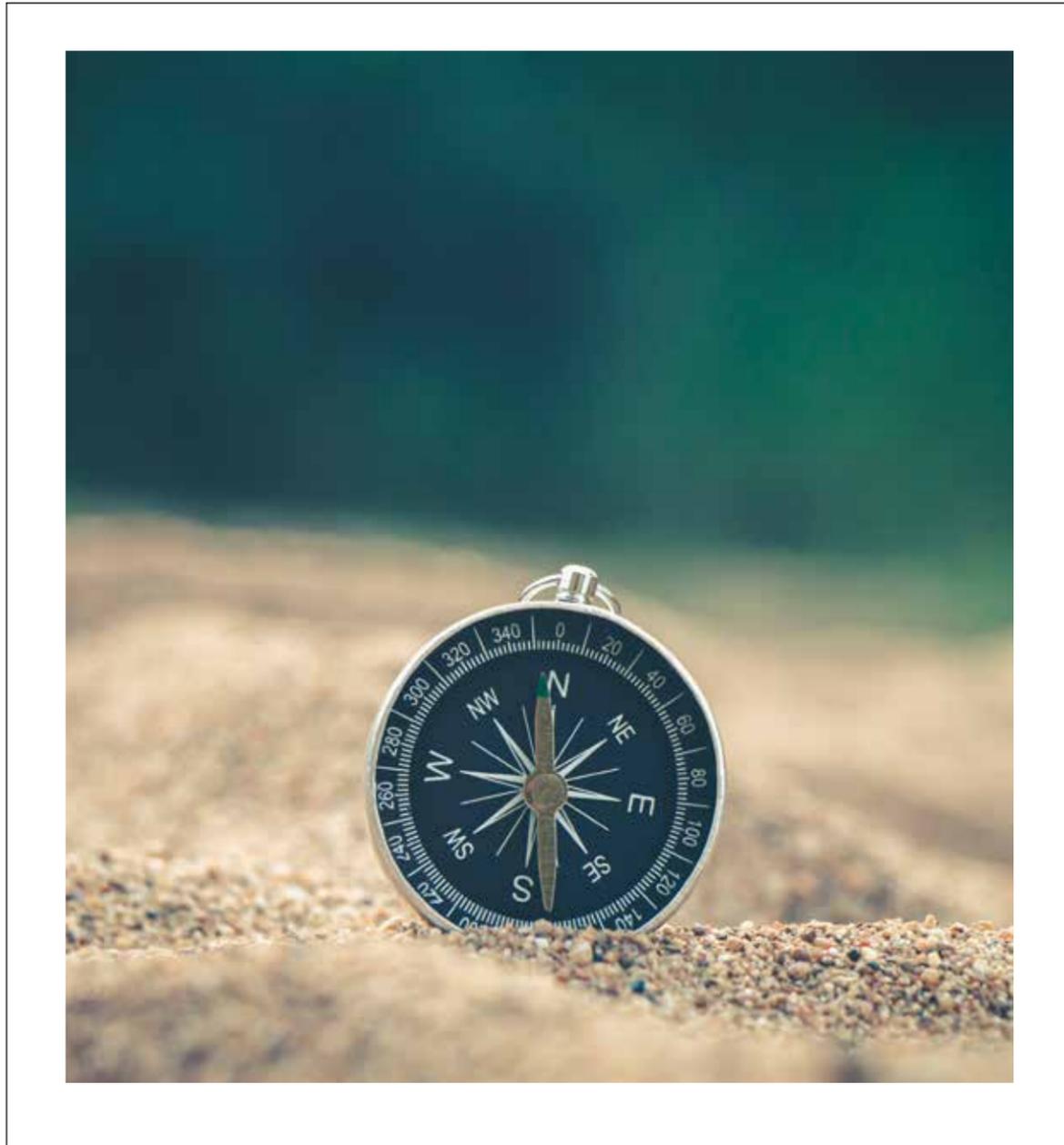
“장학금 혜택 많은 로스쿨,  
제가 산증인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영민 변호사

18  
**REAL STORY**

초졸의 우당탕탕  
로스쿨 생활기

영남대학교 로스쿨  
이강일



삶은 끊임없는 탐색이다.

- 한강, <채식주의자> 中 -

<b>SPECIAL INTERVIEW</b>	04
홍대식(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b>HOT ISSUE</b>	08
<b>POWER INTERVIEW</b>	10
김영민(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b>HAPPY LAWSCHOOL</b>	14
김가영(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b>BOOK</b>	17
<b>REAL STORY</b>	18
이강일(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용현(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세웅(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b>CONTEST</b>	30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b>STATISTICS</b>	35
202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원서접수 현황	
<b>HOT CLIP</b>	36
법조 드라마 전성시대	
<b>LETTER FROM</b>	40
임주혜(변호사)	
<b>SPECIAL REPORT</b>	42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공동 학술대회	
<b>AKLS NEWS</b>	47
<b>OPINION</b>	48
김용섭(S&L 파트너스 변호사)	
민고은(법률사무소 진서 변호사)	
<b>HEALTH MENTORING</b>	52
권예진(뉴스 상담센터 대표)	
<b>MOVIE TALK TALK</b>	54
윤태인(변호사)	
<b>OUT CAMPUS</b>	58
<b>QUIZ</b>	59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 게재되는 칼럼, 인터뷰 내용 등은 본지의 편집 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4년 11월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발행인 홍대식  
편집인 김명기  
편집기획·진행 박소희  
등록번호 2289-0262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1길 34, 5층(02-752-2037)  
디자인 ㈜그리고나무 (02-2268-2592)  
인쇄 ㈜빅북프렌즈



#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協 이사장 “문과생 진로 막혀 로스쿨 쓸림… 인재 미스매치 해소해야”



법조인 양성 위한 소양·실무 교육 통합  
다양한 배경·지역 인재 배출할 수 있어  
돈이 없어 로스쿨 못 간다는 일도 없어

체계적인 제도·교육 받고 법조인 돼야  
변시 무관한 기초 법학 과목 외면 ‘그늘’  
로스쿨·학부 법학과 간 협력 체계 필요

‘5脫’ 규정 적용 인원 1543명… 대책 절실  
AI 시대 리걸테크 기업들과도 협력의 문

서울·지방 로스쿨 간의 격차도 해소할 것

대한민국 이과생들한테 의대가 있다면  
문과생들에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심지어  
대기업 사원들조차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로스쿨 입시에 매달린다. 지난 9월 접  
수를 마감한 2025학년도 로스쿨 전형 경  
쟁률은 5.75대 1까지 치솟았다. 전국 25개  
로스쿨 정원을 다 더하면 2000명인데 그 6  
배 가까운 1만1492명이 도전장을 내밀었  
다. 로스쿨이 개원한 2009년 1만3689명  
이 몰려든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연합체인 법학  
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입학의 첫 관  
문에 해당하는 법학적성시험(LEET) 시행  
을 주관하고 로스쿨 제도 개선 방안을 모  
색하는 곳이다. 최근 협의회 제12대 이사  
장으로 취임한 홍대식(59·사법연수원 22  
기) 서강대 로스쿨 원장과 28일 만나 개원  
15주년을 맞은 로스쿨의 현황 등을 주제  
로 얘기를 나눴다. 홍 이사장은 서울대 법  
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10년간  
판사로 재직한 뒤 2006년부터 법학 교수  
로 강단에 서 왔다. 다음은 홍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 홍대식 이사장이 걸어온 길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법학석사, 경제법 전공)
- 영국 런던대학(University College London)  
Visiting Scholar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경제법 전공)
-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 Berkeley)  
Senior Visiting Scholar
- 現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現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12대 이사장
- 現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現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現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올해 로스쿨 개원 15주년을 맞아 지난 역  
사를 간략히 평가한다면.

“로스쿨 도입 후 한동안은 사법시험과  
병존했다. 그러다가 2017년 사시가 폐지되  
며 로스쿨이 국내 유일의 법조인 배출 통  
로가 됐다. 로스쿨이 생기기 전 대학의 법  
대 또는 법학과는 변호사를 길러내는 것이  
목표는 아니었다. 로스쿨을 통해 비로소 법  
조인 양성을 위한 소양 및 실무 교육의 통  
합이 이뤄졌다. 사시 시절에는 법조인 대부  
분이 학부 때부터 법학을 공부했다. 로스쿨  
도입을 계기로 학부에서 다양한 학문을 전  
공한 이들이 법조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사장개선 사시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거  
쳐 법조인이 되었다. 또 현재는 로스쿨에

몸담고 있다. 옛 사시 및 연수원 시스템과  
로스쿨 시스템을 비교한다면.

“사시 시절엔 학부 때부터 법학을 전  
공한 이들이 사시 합격자의 90% 이상이었  
다. 그러다 보니 법률가 집단이 굉장히 동  
질적이었다. 다양한 이슈나 관점에 대응하  
는 능력을 갖춘 인재의 유입이 부족했다.  
로스쿨의 장점은 다양한 배경의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사시 통과는  
굉장히 어려웠다. 학원을 많이 다녀야 하  
고 수험 기간도 길다 보니 아무래도 경제  
적 여유가 있는 이들이 사시에 합격했다.  
합격자들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  
제도 있었다. 반면 로스쿨은 지역균형 인  
재 선발제도를 통해 지역 인재를 선발한  
다. 자연히 법조인들의 출신 지역이 다양  
해졌다. 또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돈이 없어  
로스쿨에 못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다. 일각에서 로스쿨 때문에 ‘개천에서  
용 나눈’ 일이 어려워졌다고들 하는데, 그  
런 독학이나 외골수 스타일의 수험 준비는  
요즘 시대와 맞지 않는다. 체계적인 제도  
아래에서 교육을 받고 법조인이 되는 것이  
현시대에 부합한다.”

물론 로스쿨에도 그들은 있다. 로스쿨  
학생들이 오직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하  
는 것을 목표로 삼다 보니 법철학, 법사회  
학 등 변시와 무관한 기초 법학 과목들은  
외면을 당한다. 지난 9월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선 기초 법학  
의 위기를 들어 로스쿨 제도를 비판하는 목  
소리가 쏟아졌다.

로스쿨이 ‘변시 준비 학원’으로 전락했다  
는 지적이 많다.

“로스쿨은 변호사 양성이 목표다. 기  
초 법학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기본 소  
양은 (로스쿨이 아닌) 학부 시절에 쌓는 것  
이 옳다. 로스쿨이 3년 과정인데 그 기간에



기초 법학까지 공부하기란 쉽지 않다. 로스쿨과 학부 법학과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학부에서 기초 법학을 공부한 친구들이 졸업 후 로스쿨로 진학하고, 이들이 로스쿨에서는 기초 법학과 기본 법학, 전문 법학을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바람직하다.”

**변시 합격률은 50%가 조금 넘는다. 이는 ‘소정의 과정만 거치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1회 변시 때 로스쿨 입학 정원(2000명)의 75%를 합격시킨다고 했다. 그 당시에는 첫 번째 응시에 불합격해 두 번째, 세 번째로 응시하는 상황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해마다 불합격자가 생겨 누적되니 응시자는 늘고 합격률은 낮아지는 게 불가피하다. 처음 제도를 설계할 때 입학 정원 말고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을 고려해 합격자 비율을 정했어야 했다. 요즘 보통 한 해에 (로스쿨 입학 정원보다 1200명가량 많은) 3200명 정도가 변시에 응시하는데, 현행 제도는 그 점을 예상하고 설계하지 않았다. 입학 정원이 아닌 응

시자 대비 비율을 토대로 룰(제도)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이 문제를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개선을) 추진하길 바란다.”

**변시에 5번 낙방하면 더는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5탈(脫)’ 규정이 과거 사회적 논란이 됐다.**

“우리 협의회가 파악하기로 5탈 규정의 적용을 받은 인원이 현재까지 1543명(1~12회 변시)이다. 이런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법학을 8~10년 공부하고도 법조인이 되지 못한다면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일뿐더러 사회적으로도 기회비용이 엄청나다. 그들이 법조 관련 직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변호사는 아니지만, 기업 법무팀 등에서 일할 수도 있지 않겠나.”

**요즘 우리나라 이공계는 인재들의 의대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 소재 명문대의 공대 등에 입학한 뒤 자퇴하고 다시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이가 꾸준히 늘고 있다. 로스쿨은 학부 졸업 후 대학원 과정인 만큼 의대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 하**

로스쿨은 지역균형 인재 선발제도를 통해 지역 인재를 선발한다. 자연스럽게 법조인들의 출신 지역이 다양해졌다.  
또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돈이 없어 로스쿨에 못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만 제법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이들조차 미련 없이 사표 내고 로스쿨 입시에 뛰어드는 현실은 다소 당혹스럽다.**

**의대와 로스쿨처럼 인재들이 너무 한 곳에만 몰리는 현상은 우려된다.**

“로스쿨 이전 사시 시절에도 법학과는 인기가 높은 학과였다. 그때는 이공계 우등생들이 다 의대만 간 건 아니고 공대도 갔다. 마찬가지로 문과생도 우수한 이가 다 법대만 간 게 아니고 경제학과에 가기도 했다. 문제는 오늘날 문과생들의 진로가 너무 막혀 있다는 점이다. 졸업 후 취업이 잘 안 되니 로스쿨로 쏠린다. 로스쿨 진학 결심 이전 단계에서 이미 인재의 mismatch(수요·공급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 산업 현장에선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분야 인재가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작 우리 대학들은 그런 인재를 길러낼 학과가 많지 않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대학 입시는 아직도 20~30년 전의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

**로스쿨 도입 후 ‘법조 일원화’의 일환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10년 이상 경력**

**을 쌓아야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정했다. 그런데 최근 국회가 법을 고쳐 그 기간을 5년으로 단축했다.**

“법조 일원화는 이상론이다. 문제는 그것에 맞게 법조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재판에서 판사가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변호사와 배심원 등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반면 우리는 재판이 판사에게 집중돼 판사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구조다. 젊어서부터 잘 훈련된 판사가 아니면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 10년씩이나 기다리기에는 너무 길고 5년 정도로 절충한 것은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한국 현실이 반영된 법조 일원화인 셈이다.”

**AI가 급속히 발전하며 ‘미래에 변호사라는 직업이 존속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가 많다. 사건 수임 후 관련 법리와 판례를 분석하고 재판부에 낼 의견을 쓰는 변호사 고유의 업무를 AI가 대체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어떤 이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전관예우가 안 통하는 AI 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고 말한다.**

**AI 시대의 법률 교육은 어떻게 할까.**

“로스쿨 입장에선 AI 솔루션(문제 해결 시스템)을 잘 다룰 수 있는 변호사를 양성하고 싶다. 지금 전국 25개 로스쿨이 저마다 규모가 다른데 규모가 작거나 지방에 소재한 로스쿨의 경우 그런 교육을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우리 협의회가 학생들에게 AI 관련 교육 기회와 채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리걸테크(법률과 디지털 기술의 연계) 기업들과도 협력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어디에 있는 로스쿨을 가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로스쿨 개원 후 15년이 지나며 서울 등 수도권 로스쿨과 지방 로스쿨 간의 격차가 커졌다. 이를 해소해 전국 로스쿨들의 평균적 역량 강화를 끌어내고자 한다.”

글. 김태훈 논설위원  
기사출처. 세계일보(2024-10-30)

issue 01



**2025학년도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 성황리 개최**

지난 8월 22일(목)~23일(금) 이틀간 양재 aT센터에서 ‘2025학년도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가 개최됐다. 행사장에는 25개 로스쿨의 개별 상담부스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의 부스가 마련됐다. 첫날 오전에 진행된 개막식에서는 25개 로스쿨 원장 및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장의 개막 인사, 개막을 기념하는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됐다. 설명회 참가자들은 한 장소에서 25개 로스쿨 교수 및 관계자들에게 입시 상담을 받고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issue 02



**제11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연세대·이화여대 로스쿨팀 특허법원장상 수상**

지난 8월 14일(수) 특허법원에서 제11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본 대회는 지난해까지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됐으나, 올해부터 특허부문과 상표·디자인부문 모두를 포괄하기 위해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서면심사를 통과한 54개 팀 중 24팀(특허 16팀, 상표·디자인 8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대회 결과 특허 부문에선 연세대 로스쿨 팀이, 상표·디자인 부문에서는 이화여대 로스쿨 팀이 특허법원장상의 영예를 안았다.

issue 03

**제9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고려대·성균관대 로스쿨팀 우승**

8월 20일(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정에서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이 열렸다. 이번 경연대회는 총 37팀 134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8개 팀 29명이 참가해, 청구인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인용’팀과 피청구인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기각’팀으로 나뉘어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그 결과 고려대·성균관대 로스쿨 ‘정의의 심판을 내리조’ 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issue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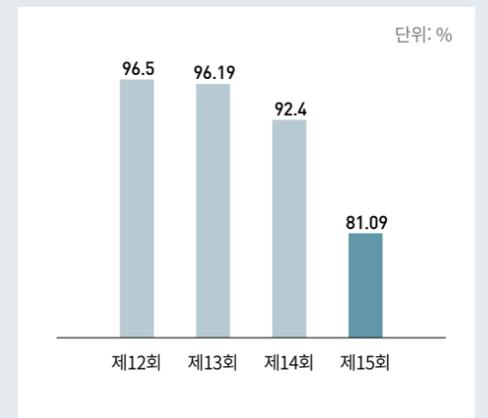
**제10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충북대 로스쿨 팀 국회의장상 수상**

노동법을 주제로 한 국내 유일의 경연대회인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서 충북대 로스쿨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8월 17일(토) 개최된 대회에서 로스쿨 학생들은 원고와 피고로 나뉘어 ‘외국투자자본 철수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행사’를 주제로 치열한 변론을 펼쳤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대회에는 전국의 로스쿨 23개 팀(69명)이 참가해 이 중 8개 팀(24명)이 본선에 올라 최후 경합을 벌였다.

issue 05

**제15회 법무부 법조윤리시험 지난해 합격률보다 11.31% 하락한 81.09%**

법무부는 9월 12일(목) 제15회 법조윤리시험 합격 정보를 공개했다. 지난 8월 치러진 법조윤리시험에는 2,121명이 응시해 1,720명이 합격했으며, 합격률은 지난해보다 11.31% 하락한 81.09%였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의 필수 요건으로, 각 로스쿨에서 법조 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차례 실시된다. 합격 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으로,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 시 합격한다. 지난해에 비해 합격률이 크게 하락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이번 시험에서는 법조 윤리 분야에 관한 문제를 균형 있게 출제했다”며, “최근 법조인에 대한 직업윤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령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사례 응용력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 “장학금 혜택 많은 로스쿨, 제가 산증인입니다.”

김영민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올해 6년 차인 김영민 변호사는 지난 5월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새 동지를 틀었다. 선임 변호사로서 일정이 많을 법도 한데, 인터뷰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낸 김 변호사는 로스쿨에서의 시간을 ‘값진 시간’이라고 회상했다. 묵묵하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김영민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송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김영민입니다. 제 이력이 조금 특별한데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29세에 이등병으로 군에 입대했습니다. 제대 후 언론사 취업을 준비하던 중, 우연히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로스쿨 장학 제도를 알게 되어 35세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그렇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지금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 Q.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로스쿨에 진학했는데, 법조인의 꿈은 언제부터 갖게 되었나요?

제 법조인의 꿈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고 조영래 변호사님과의 인연이 큰 영향을 미쳤죠. 조영래 변호사님은 제 큰어머니와 사촌지간이셨는데, 어릴 적부터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인권 변호사’로 유명하셨던 조영래 변호사님 같은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키워왔죠. 그러다 자연스럽게 법대에 진학하게 되었고, 법조인의 꿈을 구체화하게 되었습니다.

### Q. 신춘문에 당선자라는 독특한 이력이 있던데, 그때의 일화를 소개해주시겠어요?

그 일화는 제 인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문예반 활동을 하며 글쓰기 대회에서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대학 1학년 때부터 매년 신춘문에 도전했지만 계속 낙방했죠.

2007년 겨울, 사법시험 2차 준비로 바빠서 새 작품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탈락했던 작품을 약간 손보아 제출했는데, 이번엔 특별한 전략을 세웠죠. 당시 대부분의 응모자들이 컴퓨터로 작성한 원고를 제출하는 추세였는데, 저는 역발상으로 직접 원고지에 손글씨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눈에 좀 더 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죠.

그리고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일보 신춘문에 관계자라면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원고지에 작품을 써서 제출한 이유를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아, 이번엔 당선됐구나!’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며칠 후 당선 통보를 받았죠. 이 경험을 통해 인생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운을 다 써버려서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하지 못한 게 아닐까 하는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웃음)

### Q. 딱딱한 법학과 말랑한 동시(童詩), 다소 어울리지 않는 조합으로 느껴집니다.(웃음)

언뜻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 두 분야가 생각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학부 때 수업을 들

었던 김재형 전 대법관님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민법의 안팎에는 상상력으로 채워야 할 많은 공간이 있다”면서 “법학적 상상력은 문학적 상상력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와, 나는 문학적 상상력과 법학적 상상력을 다 가진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웃음) 사실 동시를 포함한 글쓰기는 제게 오랜 취미였고, 법학은 전공으로 공부한 분야죠. 취미와 직업의 관계로 보면 그리 이질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것이 제 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Q.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사실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늘 장학금의 도움을 받으며 공부했어요. 대학 졸업 후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이 상당했죠. 그러다 31세에 군 복무를 마치고 취업을 준비하던 중, 한 친구가 제 상황을 듣고는 로스쿨 장학금 제도를 알려주었습니다.

알아보니 제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해 로스쿨 입학 시 상당한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 리트(LEET) 응시료까지 면제받을 수 있었죠. 그때서야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좀 아쉬웠습니다. 더 일찍 알았더라면 군 전역 직후 바로 로스쿨에 도전했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특별한 준비 없이 리트에 응시했

는데, 의외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성균관대와 중앙대 두 곳에 합격했고, 고민 끝에 3년간 등록금과 매월 100만 원의 생활비까지 지원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중앙대 로스쿨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 Q. 로스쿨 입시 준비가 어렵지는 않았나요? 사법시험과 결이 달랐을 텐데요.

사실 리트 시험이 제게 더 잘 맞았습니다. 흔히 리트를 두고 ‘아이큐 테스트’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장시간 앉아서 정보를 암기하는 사법시험보다 리트가 더 편했어요.

특히 언어이해 영역은 딱히 준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수월했습니다. 추리논증은 조금 생소해서 잘 못 풀었는데, 의외로 짝은 것들이 많이 맞더라고요.(웃음)

이 경험을 통해 제가 오랜 시간 공부해서 지식을 쌓는 것보다 주어진 자료를 짧은 시간에 해석하고 적용하는 유형의 시험에 더 강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수능 시험도 그래서 고득점을 했던 것 같고, 이런 제 특성이 로스쿨 진학과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 Q. 중앙대 로스쿨에서 보낸 3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많겠습니.

정말 값진 3년이었습니다. 제가 8기였는데, 41명의 동기 중 제가 나이가 가장 많았어요. 법학을 전공했고 사법시험 준비 경험도 있어서 변호사시험 합격에 대한 자

신감이 있었죠. 실제로 1학년 1학기 때 수업에서 교수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는 걸 보고 동기들이 저를 “어일영”이라고 불렀어요. ‘어차피 일등은 영민’이란 뜻이었죠.(웃음)

재미있는 건 제가 실제로 1등을 못했다는 거예요. 동기들은 처음 접하는 법학 공부에 사력을 다해 매달렸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공부했거든요. 그래도 모든 과목에서 상위권은 유지했습니다.

이런 여유 덕분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논문집 편집위원회, 기독교 동아리, 여러 스터디에 참여했고, 가인법정변론대회, 모의헌법재판변론대회, 군사법변론대회 등 대회 출전도 많이 했죠. 실무실습도 헌법재판연구원, 사법연수원, 경찰, 검찰 등 거의 매 방학마다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1학년 여름방학엔 중국인민대학으로 6박 7일간 중국법 연수도 다녀왔어요. 수업 또한 졸업요건이 96학점인데 반하여 저는 120학점이나 들었습니다. 아마 전국 로스쿨 8기생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은 수업을 들었을 거예요.(웃음)

지금 돌이켜 보면 로스쿨 3년 동안 하고 싶은 것은 거의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정말 의미 있고 알찬 시간이었어요.

#### Q. 변호사시험을 치를 당시의 나이가 38세로 어린 동기들과 제법 차이가 났을 텐데, 체력적으로 버겁지는 않았나요?(웃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공자로서의 배경 덕

분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체력적인 부담은 크게 없었어요.

다만,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마치고 변호사시험까지 한 달여 남았을 때 잠시 방심했던 적이 있어요. 학교에 안 나가도 되니 자취방에 틀어박혀 하루종일 유튜브나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변호사시험 직전까지도 ‘떨어지면 어떡하지?’하는 걱정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다행히 합격했지만, 합격자 발표까지의 3개월이 정말 마음 졸였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하기 싫을 때 그걸 이겨내고 하는 것이 실력이라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 Q. 어느덧 6년 차 변호사로 활약 중이십니다. 최근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보금자리를 옮기셨는데,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네, 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 일반 민사, 형사 송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륜에서는 가사 사건, 즉 이혼이나 상속 관련 업무도 많이 하고 있어요.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다루면서 소위 내공을 쌓고 있습니다.

#### Q. 업무에서 느끼는 보람과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보람은 역시나 의뢰인들의 문제

를 해결해드릴 때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한 분들이나 법률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도와드릴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제 경험과 지식으로 그분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이 변호사로서 가장 큰 기쁨이에요.

애로사항이라면 때로는 의뢰인의 기대와 법적 현실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당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바라시지만, 법적으로 그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현실을 설명드리면서도 최선의 대안을 찾아 의뢰인을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업무량이 많아 개인 시간 관리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도 제가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 Q. 요즘 변호사님을 가장 즐겁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요?

최근에 러닝에 푹 빠져있습니다. 6월부터 런데이앱이라는 것을 통해 러닝을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는 마라톤 대회 10km 코스에 출전해 55분대 기록을 세웠어요. 처음엔 돈이 별로 들지 않는 운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깊이 빠져들다 보니 러닝화, 러닝벨트, 스포츠워치 등 구입할 것이 의외로 많더라고요.(웃음)

30분 쉬지 않고 달리기, 50분 쉬지 않고 달리기, 5km 완주, 10km 완주 등 하나씩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때마다 저 스스로에게

이런 물품들을 선물하고 있어요. 일종의 ‘러닝 플렉스’라고 할까요?(웃음)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거의 러닝 관련 영상만 보고 있을 정도인데,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건강도 챙기니 일석이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하프 마라톤에, 그 후에는 풀 마라톤에도 도전해 보고 싶어요.

#### Q. 변호사 김영민 그리고 사람 김영민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앞으로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더욱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다뤄왔는데, 이제는 노동법, 가사법(이혼, 상속), 형사법, 저작권법 같이 어느 하나의 특정 분야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해요.

장기적으로는 제 이름을 건 법률사무소나 로펌을 운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때가 되면 ‘김영민 변호사’ 했을 때 ‘아~ 무슨 분야의 실력자’하는 소리와 함께 따뜻하고 겸손한 변호사라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계속해서 공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갈 계획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가정과 일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제 딸이 이제 만 4살인데,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도 소중히 여기며 가정과 일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작은 꿈이 하나 있다면, 언젠가는 변호사 아동문학가로서의 활동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변호사이면서 작가로 활동

하시는 분들을 보면 늘 부럽고 존경스럽거든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나 에세이를 쓰고, 나아가 어린이 법률교육까지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 Q. 마지막으로 나이가 많아서 혹은 학비가 비쌀 것이라는 오해로 로스쿨 진학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먼저 학비 걱정은 과감히 접으셔도 좋습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 지원 혜택이 정말 많아요. 저 역시 그 혜택을 받은 산증인니까요.

나이가 많다는 것도 절대 불합격 요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삶의 경험이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나이가 지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사회 경험을 쌓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법조인으로서 어떤 강점을 가지게 됐는지를 잘 어필하는 거예요.

과거의 학부 성적은 이미 지나간 일이니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대신 지금 노력으로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 있는 토익 같은 영어 성적이나 리트 성적에 집중하세요.

‘나는 나이 때문에 안 돼’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대신 그 나이를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본인의 강점으로 잘 녹여낼 것인지만 고민하세요. 그렇게 준비하신다면, 3년 후에는 분명 저와 함께 법조계에서 활약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로스쿨에 입학해서 깨달았죠. 항상 1등을 하고, 늘 최고의 성과를 내면서 살 수는 없다는 것어요. 그때부터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다른 요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김가영 학생은 로스쿨에 입학한 후에야 깨달았다. 사람은 한 가지 요소만으로는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자신만의 속도로 부지런히 걷고 있는 김가영 학생을 만나봤다.

“따뜻한 논리를 가진 법학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Q.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던데.**

**A.** 경제는 논리적이고 수학을 통해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 고등학교 때부터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었다. 어린 시절 꿈이 법조인이기는 했지만 막연한 꿈일 뿐 확신은 없었는데, 좋아하는 공부를 하다 보면 꿈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경제학과에 진학했다.

**Q. 본격적으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진로가 조금 더 선명해졌나?**

**A.** 그렇다(웃음). 사실 경제학은 정말 재미있는 학문이기도 했지만, 국가의 경제, 세계 경제 상황같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공부해야 한다. 내가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보니 자신이 없었다. 또 너무 추상적인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조금 더 인간의 삶과 맞닿아 있는 공부를 하

고 싶었다.

마침 그 당시에 작은 법률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몰입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웃음). ‘어떻게 하면 사건을 잘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열정이 생기는 걸 보면서, 이 일은 내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 로스쿨 입학 준비를 했고, 조기졸업 후 곧바로 진학했다.

**Q. 법학과 경제학. 메커니즘이 다른 학문인데, 로스쿨 입학 후 어려움은 없었는지.**

**A.** 경제학은 핵심만 잘 파악하면 되는 과목이다. 주어진 수식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완벽히 이해하고, 그것을 도출해낼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로스쿨에 처음 입학했을 때, 경제학 방식으로 답안을 정말 간단하게 작성해서 제출했다. 그랬더니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기

김  
가  
영

님께서 호출하시더라(웃음). 그때부터는 문제를 하나하나 끊어 읽어가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포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쓸 말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했다. 또,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Q. 공부할 양이 녹록지 않았겠다.**

**A.**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과목은 수업을 들은 날에 바로 정리를 하는 편이다. 당일에 정리하지 않으면, 기억이 휘발돼 오랜 시간이 걸린다. 수업이 있는 주간에는 정리를 완벽하게 해두고, 나머지 시간이나 시험 기간에는 정리한 내용을 열심히 공부하는 식이다. 로스쿨 공부는 일단 양이 많으니까 정리본이 없으면 좋은 성적을 받기 힘들더라.

**Q. 법학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A.** 법학은 따뜻한 논리를 가진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법학은 실체적 정의를 보장해야 하므로, 그 논리는 매우 치밀해야 한다. 이렇게 냉철하고 차가운 논리 속에서도, 이 사람이 왜 이런 사건을 겪게 됐고, 이런 분쟁에 휘말리게 됐으며, 이것 어떻게 해결하는 게 우리 인간 사회에 더 바람직한 결론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점에서 따뜻한 동기를 가진 학문인 것 같다.

특히 판례를 보면 사람들의 인생이 농축되어있는 느낌이라 법을 공부한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Q. 로스쿨 생활의 에피소드는?**

**A.** 서울대 로스쿨은 10명이 한 조로 배정된다. 마치 같은 반 학생들처럼 한 조로 묶이면 함께 식사도 하고, 시간표를 공유해

서 수업도 같이 듣는다.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부터 알던 친구처럼 친해지게 돼, 방학 때는 조원들과 여행도 다녀왔다. 또 조마다 지도 교수님이 배정된다. 서울대 로스쿨은 특히 학생 1인당 교수님이 많은 편이라, 교수님들께서도 굉장히 세세하게 케어를 해주셨다. 진로 고민이 많을 때니까 진로에 대한 상담도 해주시고, 밥도 자주 사주신다(웃음).

**Q. 올해, 서울대 로스쿨 홍보대사로 활약했다.**

**A.** 국내·외에서 교수님, 손님, 학생들이 찾아오면 투어를 하면서 학교 곳곳을 안내했다. 이 외에도 로스쿨 입시 설명회에 참여해서 학교생활과 관련한 상담을 하기도 했다. 홍보대사를 하기 전에는 너무 바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학교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실

제로 일정이 빽빽하지는 않았다.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로스쿨 생활이 팍팍하지만은 않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리고 내가 원래 학교를 많이 사랑한다(웃음).

**Q. 로스쿨 입학 전과 후,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A.** 일단은 되게 고립되는 것 같다(웃음). 사실 나도 트렌드에 민감한 편이었는데, 요즘엔 로스쿨생이 아닌 친구들을 만나면 ‘너 이것도 모르냐’고 하더라.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로스쿨 동기들과 보내다 보니 확실히 고립되는 면이 있다. 가치관이 바뀌기도 했다. 로스쿨 입학 전에는 내가 정한 목표를 무조건 달성해야만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로스쿨에 와보니 똑똑한 학생들이 정말 많았고, 항상 1등을 하고, 늘 최고의 성과를 내면서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사람이 한 가지 요소만으로는 행복하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내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다른 요소들을 찾아봤다. 가족들과 가능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시간을 쪼개서라도 친구들을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말이다.

**Q. 가영님만의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은 무엇인가?**

**A.** 오래전부터 한국무용을 취미로 했었는데, 무용이 나에게 가장 확실한 행복을 보장해준다. 지금 하고 있는 공부도 그렇고, 앞으로 하게 될 일도 그렇고, 감정적으로 표출할 일이 잘 없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힘든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어도 계속 놀러두게만 되더라. 감정은 표출하지 않으면

안에서 끓는다. 한국무용은 몸을 움직이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장르여서, 감정이 치유된다.

**Q. 슬럼프는 어떻게 극복하나?**

**A.** 자아를 다양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나는 공부를 하는 로스쿨 학생이지만, 한 가정의 딸인 나도 있고, 친구로서의 나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자아를 만들어 두고, 한쪽에서 상처를 받으면 다른 쪽에 가서 ‘난 여전히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위안을 얻는다(웃음).

**Q.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A.** 프리다 칼로라는 화가를 존경하고, 저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프리다 칼로는 몸이 완전히 망가진 상황에서도 삶을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인물이다. 나도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삶은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매일 같은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아무래도 무더지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잊게 된다. 하기 싫다, 귀찮다, 쉬고 싶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프리다 칼로를 상기하려고 노력한다. 내가 지금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말이다.

**Q. 졸업 후에는 어느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가.**

**A.** TMT, ICT 같은 떠오르는 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 이 분야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혁신이 가장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분야여서 흥미로웠고, 아직 규제가 미비하기 때문에 법조인으로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 고객들이 ‘제일 든든한 내 편’이라고 여길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언제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늘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는 그런 변호사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언젠가는 Chambers Asia-Pacific에 랭크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웃음).

**Q. 로스쿨 입시가 한창 진행 중이다. 미래의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A.** 본인이 어떻게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사람인지를 많이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실패했을 때 어떻게 겪어나갈 것인지 고민해보면 좋겠다. 로스쿨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공부를 좋아하고 잘했던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 내가 제일 잘하는 공부를 남들만큼 하지 못했을 때, 굉장히 괴로워하게 된다. 또 실패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좌절이나 실패의 순간이 왔을 때 극복해내기가 어렵다. 나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너도 당연히 실패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왜 너만 실패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냐’고 말씀하셨다. 그때 깨달았다. 어떤 사람이든 실패할 수 있고, 그 상황을 극복하는 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에 꼭 생각해보면 좋겠다.

**김가영 학생이 알려주는 로스쿨 입학 꿀팁**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나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기소개서의 소재를 꼭 ‘법’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자신만의 개성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겠다. 나의 경우엔 어필하고 싶은 나의 장점을 하나 고른 후, 그 장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소재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면접을 볼 때에도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면접관의 입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생각하고 답변했다.

**법학적성시험 문제 해설**

- 법학적성시험 출제·시행기관이 직접 기획한 공식 해설서
- 출제에 참여한 최고의 교수진이 제공하는 믿을 수 있는 해설
- 2025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언어·추리 11회분 해설수록
- 시험 대비는 물론 지적 즐거움과 높은 수준의 사고력 훈련까지!

「법학적성시험 문제해설」은 법학적성시험 기출문제 공식 해설서로, 법학적성시험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넓히고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출제 기관인 법학적성평가연구원에서 기획하여 매년 펴내는 도서이다. 출제 근거에 기반한 명료한 풀이가 수록돼 있어 시험 대비는 물론 지적 즐거움과 높은 수준의 사고력 훈련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저 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출 판 사	에피스테메
판 매 가 격	18,000원 ~ 22,000원
판 매 처	전국 오프라인 서점 및 온라인 서점(12월 출간 예정)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집**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전문 재학생들에게 변호사시험 본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연 3회 실시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은 매년 6월, 8월, 10월 진행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출제·시행하고 있다. 시험 종료 후에는 영역별 문제와 출제진의 해설이 담긴 해설집을 발간해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제 작 대 상	공법, 형사법, 민사법(선택형, 사례형에 한함)
판 매 가 격	10,000원 택배비 5,000원 (단, 40,000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신 청 방 법	상시 주문, 교재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송부 (lawschool@leet.or.kr) ※ 자세한 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 참고



제1회 로스쿨 입학·생활 및 변호사시험 수기 공모전 대상작

초졸의 우당탕탕  
로스쿨 생활기



이강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집에서 나오게 되어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은 일을 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되었다. 시골에서 자랐기에 처음에는 지인을 통해 주로 농사일을 배우며 지냈으나 이후에는 점점 활동 범위가 넓어져 도축, 목공, 중장비 운전 등 정말 다양한 일을 하면서 겨우 검정고시를 통과한 후 원격대학교를 6년간 다녀 졸업했다.

이후 공군에서 군사경찰 장교로 복무하며 법에 관심이 생겼고 주변의 추천을 받아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다. 만으로는 12세부터 일을 하며 약착같이 경제활동을 했고, 원격대학교들은 대부분 본부가 서울로 등록되어 있었기에, 농촌 토박이임에도 경제적 배려나 지역인재 등의 특별전형 지원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학업도 일천했을 뿐 아니라 일하며 공부하느라 학점도 매우 낮았다.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한 입장이었으나, 불가능에 가까운 인생 국면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것은 이제 정말로 지긋지긋하여 남들처럼 가방 메고 실물이 있는 학교에 가서 원 없이 공부만 좀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준비한 바로 이듬해에 14기로 합격하게 되어 2022년부터는 정말로 공부만 할 수 있게 되었다.

공부를 해보겠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응원을 받았다. 함께 일해왔던 후배, 동료, 선배, 상관, 주변 어른들과 가족들까지, 나의 인생길을 아는 모든 이들이 한목소리로 너는 할 수 있다고 외쳐주었기에 이에 힘입어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을 때는 공부를 약간 우습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시중에 유명한 책 제목도 있지만, 절대 공부가 쉽지 않은 것임을 깨닫는 데는 2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다.

처음 입학해서는 느긋하게 수강신청하다가 선호하는 과목을 모두 놓친 것으로 1학년 1학기를 시작했다. 원격대학교는 여석이라는 개념이 따로 없어 수강신청을 전쟁하듯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믿었던, 주변에서 비법학사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그 외관만 존재하는 부진정 비법학도였고 가끔가다가 진짜를 만나더라도 기본적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동기들은 정규교육 과정을 매우 우수하게 졸업한 인원들이었기에 아무래도 기본적인 학력 면에서 동일할 수는 없었던 것 같다.

결국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여름방학에 받아 본 입학 후 첫 학기 성적은 밑에서 세는 것이 빠를 정도의 말석이었고, 그래도 그간 일을 하면서는 어느 집단에서나 우수하다는 칭찬만 받아왔던 나로서는 여간 충격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로스쿨에서 나의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 세계의 난이도를 깔끔하게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오만을 벗어버리고 1학년 여름방학부터는 더 열심히 학업에 매진했다.

우리 학교는 1학년 1학기에 민사법 과목만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을 한번에 배우는데 처음에는 정말 너무나 버거웠지만, 함께 공부해주는 좋은 동기들과 언제나 찾아가면 따뜻하게 설명해주는 교수님들 덕분에 점점 따라가기 수월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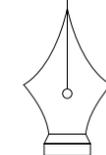
로스쿨의 첫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무슨 과목을 어찌 공부할지 고민 중 공부를 잘하는 법학사 친구의 권유로 방학 스터디를 구성하여 2학기 과목을 선행학습했다. 행정법과 상법, 민사소송법을 들었는데 사실 기억에 크게 남지는 않은 것 같지만 해당 과목들의 전체적 틀을 잡는데는 큰 도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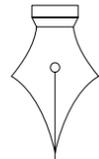
1학년 2학기에는 동기들과 함께 원하는 과목을 모두 수강신청할 수 있었고 방학 때의 선행학습으로 수업도 훨씬 수월하게 따라갈 수 있었다. 학교 수업을 녹음해봐야 안 듣게 된다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의 동의를 얻어,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는 과목의 수업을 모두 녹음했다. 그리고 집에서 빨래, 청소 등 집안일을 하거나 운동과 산책을 할 때 그 날 들은 수업을 1.5배속 내지 2배속으로 들었는데, 친구들은 그런 나의 행태를 질색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갖은 육체 노동으로 빠르게 골병이 들어 건강이 정말 좋지 못했던 나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체력적 문제로 책상 앞에 앉아있을 수 있는 시간조차 평범한 친구들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이다.

수업 때는 교과서와 교수님 판서도 보면서 필기도 해야하고 아무래도 처음 듣는 내용이다보니 순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생겨도 실시간으로 내용이 계속되기 때문에 아무리 집중해서 들어도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편안한 상태에서 귀만 열고 다시 찬찬히 그날 수업을 빠르게 다시 들어보면 화자의 수업 의도 안에서 놓쳤던 부분들이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연결되면서 이해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서 좋았다.

여전히 알 수 없는 부분이 많고 친구들에 비해 부족한 점도 많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로스쿨 생활에 적응해가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인지 1학년 2학기는 이전 학기보다 20등 이상 올라간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었다.

법이 굉장히 매력적인 학문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시점이었기에 겨울방학도 굉장히 즐겁게 보냈던 기억이 난다. 1학년 겨울방학은 마찬가지로 다음 학기 선행으로 형사소





송법을 강의를 들으며 공부했고, 민사소송법과 민법을 전체적으로 복습했다. 마찬가지로 공부하다가 모르는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구실로 찾아가 교수님들께 질문했고 항상 질문 이상의 답과 깨달음을 얻어 돌아왔다.

로스쿨에서의 첫 겨울을 보내고 2학년이 되어서는 멘토 활동도 했다. 내 한 몸 건사하는게 목표라 한사코 안하려고 했으나 학생회 친구들의 강권으로 말았는데, 생각보다 멘티들이 내 경험을 너무 재밌고 유익하다고 해주며, 작은 조언들도 믿고 따라와줘서 지금은 좋은 선후배이자 친구로서 함께 힘을 내고 있다.

2학년 1학기는 몸 상태가 많이 좋지 못해서 다소 힘들었던 학기이기도 한데, 하루에 수업 시간을 제외하면 1시간도 책상에 앉아있을 체력이 안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건강이 안 좋은 친구들은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지 알 것이다. 배터리로만 하루 종일가는 신형 노트북들 사이에서 나만 코드를 뽑으면 바로 꺼지는 구형 컴퓨터가 된 기분이었을까. 아무튼 나는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코드를 연결한 채 학기를 보냈다.

나는 인간이 죽기 직전까지 남은 감각이 청력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책상에 앉아 눈을 뜨고 뭔가를 볼 수 없을 때도 귀를 열어 공부할 수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 1학년 때 하듯 수업 녹음본을 들으며 복습을 하고, 힘이 조금이라도 남을 때는 중요 쟁점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내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반복적으로 들었다. 수업도 정말 좋은데, 무엇보다 직접 자신이 정리한 정보는 다시 들을 때도 인지 자원이 크게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힘들 때 들어도 머리에 비교적 잘 들어온다.

이렇게 동기들이 극혐하는 나의 취미가 하나 더 늘었지만, 체력이 너무나도 약한 내게는 지금까지도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는 학습방법이 바로 이 녹음과 반복 듣기다. 이렇게만 말하면 수업 듣고 스스로 쟁점을 정리한 걸 체계적으로 녹음해서 쉴 때도 맨날 그걸 듣는 습막히는 공부방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힘이 닿는대로 정리하고



녹음한 것이어서 목차로 보아도 빠진 부분이 더 많았고 정말 되는대로 우물떡 주물떡 정리해서 한줄이라도 배운 걸 머리에 넣어보려는 발버둥이었다고 생각된다.

2학년 1학기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서 우수한 성적은 아니지만 스스로는 한 단계 발전했다고 생각되는 학기였다. 특히 소송법을 배우면서 실체법이 훨씬 더 잘 와닿는 부분도 있다보니 한층 법의 재미를 느끼게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되었다. 우리 학교는 2학년 여름방학 때 실무실습을 나가게 된다. 학기 중에 리걸클리닉 활동도 굉장히 보람있고 즐겁게 했었기에 실습도 기대를 많이 하면서 나갔는데, 로펌에 가서 졸업한 선배들도 만나고 법원도 다니며 실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학습 동기부여에는 더없이 큰 자극이 되었다. 아직 안 다녀온 학생이라면 방학 1~2주를 아깝게 생각 말고, 다녀오고 싶은 분야에 지원해서 후회 없는 로스쿨 생활을 보냈으면 좋겠다.

2학년 2학기는 드디어 기록형을 배우게 되는 시기라 기대를 많이 했고, 예상대로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재밌었다. 사례로만 볼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요건사실이 정말 입체적으로 다가왔고 주장과 항변 구조가 그간 배웠던 2D 그림을 3D 그래픽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비록 시험은 대차게 망했지만 그렇게 흥미로울 수가 없었다. 민사법과 형사법이 온통 새로이 보이는 것이, 과연 법학은 회독 공부라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거의 대부분의 동기들과 친해진 시점이라 학기 중에 이런 저런 스터디도 많이 만들어서 함께 공부했다. 특히 기록형은 도저히 혼자서 쓸 엄두가 안났기에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풀어보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다고 잘 썼다는 것은 아니고 처음이라 학기 내내 엉망진창이었지만, 일단 앉은 자리에서 기록을 통으로 보고 어떻게든 메모를 하고 소장이나 변론요지서를 써본 것은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다.

시험을 크게 망쳤지만 그래도 이제는 학교에서 중간 정도까지 성적이 올라왔고 무엇보다 내 사정을 아는 친구들과 교수님들의 아낌없는 응원에 힘입어 좌절하지 않고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다시 겨울을 맞이했다. 2학년 겨울방학에는 무엇을 해야할까 고민하다가 3학년을 앞둔 시점이다보니 변호사 시험을 염두에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진도 자체는 2년간 나갔던 부분이지만 워낙 양이 광범위 하다보니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도 많았고, 기록형을 어느 정도 맞 본 지금이라면 다시 보일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시험 과목인 7법 모두 암기장을 구해서 복습했다.

그 와중에 공법은 아무래도 다른 과목에 비해 들인 시간이 적다보니 학년이 올라가도 걱정이었고, 특히 행정법이 잘 정리가 안되어서 고민이었다. 이런 사정을 안고 행정법 교수님께 암기장을 들고 찾아갔더니 거의 방학 내내 한 장 한 장 과외를 해주다시피 하였고, 헌법은 학교에서 특강을 여러차례 사례형과 기록형까지 열어줘서 교수님들의 큰 사랑에 힘입어 공법에도 어느정도 자신감을 찾았다.

한편 방학은 누구에게나 항상 늘어드는 기간이다보니 친구들과 방학 스티디를 꾸렸다. 다만 3학년을 목전에 두고 지난 2년간 나름대로 공부해온 방식이 생겼기에 각자 공부하고자 하는 바가 모두 달라서 아침 출석과 목표 인증 형식으로 스티디를 구성했다. 각각이나 목표 미달성 벌금도 엄격하게 책정했는데, 함께 하니 확실히 생활 패턴도 안정되고 목표 진도도 달성할 수 있어서 효과를 많이 봤다. 우리 동기들은 학습과 친목 면에서 정말 분위기가 좋아서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이 큰 힘이 되었다.

우리 로스쿨은 학교 자체적으로 방학 중 2월 모의고사를 보는데 3학년 올라가기 직



전에 변호사 시험을 풀 스케일로 맞볼 수 있어서 특히 큰 도움이 되었다. 방학 때 복습했던 7법을 모두 부딪혀볼 수 있었고, 시험 시간과 장소와 형태가 실제 변시와 동일하여 변호사 시험이라는 시험 자체의 구조에도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무엇보다 학교 내신같이 적은 범위에도 허덕이는 내가 7법 선사기를 한 번에 치는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 변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간 보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어 심적으로도 평안을 얻었다. 물론 다 잘 본 것은 아니고 처참한 부분도 많았는데 본격적인 수험 기간 전에 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지표이기도 했기에 3학년 한 해를 더욱 불태워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다.

수사장교 시절, 법무관들을 보며 로스쿨이라는 곳을 처음 들었고 전역 후 세계 각지를 다니며 활동하다가 주변 어른들의 추천을 받아 리트 공부를 하게 된 것이 었그제 같은데, 어느새 16기 면접을 본다고 하더니 입학식 안내 간판이 학교 내에서 보인다.

벌써 3학년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데, 남은 한해도 열심히 학업에 매진해서 내년에는 변호사시험 합격 수기를 써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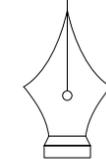
입학 전에는 로시오패스니 그런 얘기들을 풍문으로 듣곤했는데, 우리 로스쿨이 그런지는 몰라도 나는 지금까지 한 명도 이상한 동기들을 본 적이 없다. 동기 중 몇몇은, 내가 어린 시절부터 너무 힘든 곳에서 거친 동료들과 일해와서 그렇게 느끼는 거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이후 처음으로 와보는 학교가 광활한 캠퍼스에 너무 착한 친구들, 언제든지 연구실에 놀러가면 따뜻한 차를 내주며 반겨주시는 교수님들까지, 내가 누리기에 너무나 감사한 일들 뿐이다.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 덕분에 재밌는 법을 공부하면서 뛰어난 친구들과 함께 절차탁마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제도 자체에도 참으로 큰 감사함을 느낀다.

로스쿨 공부는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 맞다. 트랙터, 경운기 몰아가며 밭일과 과수 농사, 닭과 오리, 호로조 등의 목축업과 도축업, 각종 목공 기계와 굴착기 등의 중장비 운전, 콘크리트 타설과 경계석 설치, 도배 및 인테리어 등 정말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동을 해본 내가 장담한다. 해본 모든 일 중 공부가 가장 어렵다. 이런 험겨운 길을 가는 전국의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 이를 준비하는 입시생들, 정말 답답하실텐데 꼭 참고 가르침을 주시는 교수님들 모두에게 깊은 존경을 표한다.

하다보면 정말 힘든 국면이 많이 있을텐데, 기왕 가기로 한 길이라면 즐겁게 가면 좋겠다. 슬럼프가 올 때는 내가 왜 이 길을 택했는지도 한번 돌아보고, 동기들과 교수님들도 찾아가서 같이 많은 대화도 나눠보았으면 좋겠다.

방황에 답이 어디있겠으며 있다고한들 모두에게 다를 것이나, 결국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며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공부 뿐만 아니라 살면서 다치는 많은 역경에 '함께' 견뎌왔기에 현재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음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본다.

이상으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일과 공부를 병행해온 자타공인 대한민국 로스쿨생 중 최저학벌, 최고위 흡수저의 법학 공부 수기를 마치려고 한다. 혹시나 주변에 비해 학력이나 가정형편이 좋지 못해 로스쿨 수학이 버겁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이 글이 조금이나마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포기하지 말고 작은 걸음이라도 함께 법조인을 꿈꾸며 매진해보자.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불자회를 소개합니다



주용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불자회 회장 주용현입니다. ‘로스쿨 창’에 로스쿨 불자회를 소개할 기회를 얻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 창립 배경

전남대 로스쿨 불자회는 2019년에 9월에 재학생 중 불자이거나 불교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벗 삼아 학업 스트레스로 지친 심신을 함께 위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로스쿨 재학생이라면 대부분 학업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경우, 원우들과 공부에 대한 각자의 방법 등을 공유하며 상당 부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마음 건강은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쉽사리 조언을 주고받기 어려워서 마음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홀로 괴로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저희 불자회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수험생활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불교의 철학과 생활양식이 원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유효하였는지, 설립 이후 규모가 10명 내외로 작았던 저희 동아리는 현재 45명이 소속되어서 즐겁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수계(受戒, Buddhist initiation ritual, 불교를 받드는 자들이 지켜야 하는 계율에 따를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일정한 의식법)를 받은 불자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있던 점이 동아리 규모 확대에 주요했던 점으로 보입니다.

전남대 로스쿨 불자회는 2024년 초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활동했던 주요 행사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 불교단체 지원금 수상

저희 불자회는 회비가 없습니다. 대신에 외부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을 수상하여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체부 산하 대한불교진흥원, 조계종 상월결사, 상월결사 전법단 등에서 감사하게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 • 불자회 창립법회

저희 동아리는 최근 광주 무등산에 위치한 증심사에서 창립법회를 가졌습니다. 증심사 주지스님인 중현스님, 만경사 시공스님, 선재사 진훤스님, 불자회 지도 교수님인 이지형 교수님 등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불교언론매체에 소개될 만큼의 성대한 창립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송광사 주지 무자스님은 축사를 통해 “정의를 위해 지혜있는 법조인이 되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해주셨으며, 증심사 주지 중현스님도 “훌륭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저희 불자회 회원들에게 위안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한 증심사 합창단도 음성공양으로 창립을 축하해주셨습니다.



전남대 로스쿨 불자회 창립법회 / 2024 부처님 오신날 사찰방문



광주 증심사 템플스테이





2024. 10. 지도스님 및 교수님 등 전체모임 / 지도교수님 식사모임

**• 템플스테이**

불자회 활동의 꽃인 템플스테이를 광주 무등산 증심사에서 올해 9월경 1박 2일로 진행하였습니다. 12명의 불자회 회원과 지도교수님 및 전임지도교수님도 참여하셔서, 지친 수험생활 속에서 자연과 사찰의 운치를 느끼며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님과의 차담회를 가지며 불교철학에 대한 공부도 하고, 저녁에는 중현 스님과 각자의 고민거리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며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외 타종행사, 저녁공양, 연꽃모형만들기, 산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잠시나마 공부에 대한 부담이 없이 1박 2일간 명상을 하는 것과 같은 마음상태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찰에서 불자회 회원들과 두런두런 모여서 풀벌레 소리, 바람소리, 나뭇잎 소리 등을 들으며 서로의 고민 등을 나눴던 추억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외 부처님오신날 사찰방문, 식사모임을 진행하여 불자회 회원간 교류의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 불교굿즈나눔, 불교문화재 단체관람, 등산 및 근교 사찰방문 등 마음 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이 기회에 빌어 전임 회장 김인겸 원우님, 전임 지도교수님 안진교수님, 이지형 지도교수님, 증심사 주지 중현스님, 만경사 주지 시공스님, 선재사 주지 진훤스님, 대한불교진흥원, 상월결사 등 불자회 운영을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불자회 회원 45명 모두가 불자회의 활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 안녕히 수험생활을 잘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 학업 스트레스 탈출! 성균관대 로스쿨 체육대회 현장속으로



박세웅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라고 하면 흔히 밤낮없이 공부에만 매진하는 ‘공부벌레’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그러한 편견을 깨듯 활기찬 체육대회를 여는 몇 학교들이 있다. 그중 이번엔 개최된 성균관대학교 로스쿨의 체육대회가 재밌었다는 소문이 들려와 직접 취재해 보았다.

뭐니뭐니해도 안전이 최우선인만큼 대회일정은 몸풀기 체조로 시작되었으며, 학생들에게는 미리 준비된 단체복도 배부되었다.

성균관대 로스쿨 체육대회의 프로그램은 축구, 전락 줄다리기, 2인 3각, 신발 양궁, 피구, 단체 줄넘기 등 이름만 들어도 재밌는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품추첨, 카드뒤집기, 미션 릴레이, OX퀴즈와 같은 오락 프로그램도 구성했다.

특히 체력이 좋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체력이 약한 학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주최측의 숨은 노력이 보이는 만큼,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흐린 날씨 속에도 뜨거웠던 열기**

날이 흐렸지만, 체육대회의 열기는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많은 학생들이 체육대회를 즐기며, 모두 한마음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특히 이번 체육대회는 학업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평소 바쁜 로스쿨 생활 속에서 잠시나마 여유를 느낀 시간이 되었다는 평가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동기들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후기를 전했다. 체육대회에 참가한 원우들을 만나, 간단한 소감을 들어봤다.

**Q. 체육대회에 대한 소감은?**

**손수현 원우(성균관대 16기)**: 3년 내내 공부만 할 것 같지만 체육대회라는 즐거운 이벤트로 1학년 2학기를 시작할 수 있어서 매우 즐거웠다. 한 기수에 130여명이 있는 만큼 모든 동기 및 선배를 알기 어려웠는데, 1학년과 2학년 모두 참여가능한 행사를 통해 동기 사이는 물론이고 선후배 간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로스쿨 입학 후 오랜 시간을 내서 강도높은 운동을 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동기들과 달리기도 하고, 줄다리기도 하며 다음날 근육통이 올 정도로 열심히 운동하니 그 날만큼은 모든 학업 스트레스도 잊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 전날 비 예보가 있었다. 다음 날은 누가 그랬냐는 듯 맑고 시원한 날씨가 펼쳐졌다. 체육대회 기획부터 진행 그리고 마무리까지 고생한 학생회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다.

**한서현 원우(성균관대 16기)**: 체육대회의 소감 코로나 학번이라 체육대회를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로스쿨에서 첫 체육대회를 해보니 너무 설레고 좋았습니다. 15기 vs 16기로 경기를 하다 보니 선배들과 이겨주겠다고 농담도 주고받고 동기들과 협동심도 다질 수 있었던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로스쿨의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Q. 가장 재미있었던 종목은?**

**손수현 원우(성균관대 16기)**: 직접 참가했던 피구 종목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거의 최대 인원이 참여하여 단합되는 기분이 좋았고, 공에 맞아 아웃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고조되는 긴장감도 재미있었다. 체육대회 참가인 중 운동선수 출신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박빙의 경기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마지막까지 홀로 남아 1학년을 지켜주던 에이스로 선정된 동기에 박수를 보낸다. 최고!

**한서현 원우(성균관대 16기)**: 피구요!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도 했고, 모두가 공에 주목하면서 주고받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특히 생존에 특화된 원우들이 매서운 공격 속에서 활약하는 모습이 참 멋있었습니다!



성균관대 로스쿨 체육대회 현수막 / 손을 모아 의지를 다지는 모습. 마치 '즐거운 시간을 보낸만큼 남은 학기도 화이팅'하자는 의미처럼 느껴졌다.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 하고 있는 성대 로스쿨 학생들의 모습

**Q. 마지막으로 체육대회에 대한 자랑 한마디**

**손수현 원우(성균관대 16기)**: 탄탄한 기획과 다양한 종목 그리고 매끄러운 진행까지, 좋은 추억만 가득 남았던 체육대회였다. 마지막으로, 대회의 꽃, 경품추첨에서 학업에 도움되는 여러가지 물품들을 나눠준 학생회의 센스를 자랑하고 싶다!

**한서현 원우(성균관대 16기)**: 체육대회 덕분에 원우들과 전우애가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내년에도 17기와 함께 체육대회 즐기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행복한 추억이 되었어요. 언젠가 로스쿨 전국 체육대회도 열리면 좋겠습니다.

**학생회의 숨은 노력**

재미있고 뜻깊은 체육대회였지만, 참가 인원이 많은 만큼 재미와 안전을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주최 측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준비과정 내내 종목 선정, 일정 조율, 경기 운영 등 계획과 준비에 많은 신경을 썼을텐데 이렇게나 많은 학우들이 체육대회를 즐기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최 측도 보람을 느끼는 듯했다. 학생회 집행부로 맹활약한 남윤형 원우를 만나 간단한 이야기를 나눴다.

**Q.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텐데**

**남윤형 원우(성균관대 16기)**: 로스쿨 생활 3년동안 추억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체육대회가 되기를 바라며 체육대회를 추진하게 되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되, 다치지 않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원우분들이 많이 참여하실지, 날씨가 체육대회를 즐기기에 좋을지 걱정을 많이 했다. 대회날 맑은 날씨와 열성적인 응원전을 펼치는 원우분들을 보며 그런 걱정이 기우였음을 느꼈다.

참여한 모든 분들께 체육대회가 고된 로스쿨 생활에서 잠시나마 한숨 돌릴 수 있었던 좋은 경험으로 남길 바란다.

**마치며**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성균관대 로스쿨 동문 선후배 간의 교류가 더욱 깊어졌고, 함께 화목한 시간을 보낸 듯하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앞으로의 학업 생활에 큰 원동력을 얻은 것은 덤이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내내 원우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필자 역시 기분이 좋았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긍정적인 문화를 잘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군사법 최강자를 찾아라! 제4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11월 15일 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제4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가 열렸다. 로스쿨 학생들에게 군형사 소송절차를 알리고 군사재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된 뒤 5년 만에 개최되면서 더욱 치열해졌다. 뜨거운 분위기와 에너지로 가득 찬 현장을 찾았다.



제4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에서 수상자와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심사평 중인 김재운 심사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경연대회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2개 팀이 각각 군 검사와 변호인 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본선에는 서면심사를 통과한 10개 팀이 올랐으며, 참가자들은 양측의 주장과 군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순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심사위원장으로 김재운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위촉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및 전 고등군사법원장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여기서 잠깐!

##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는 어떻게 진행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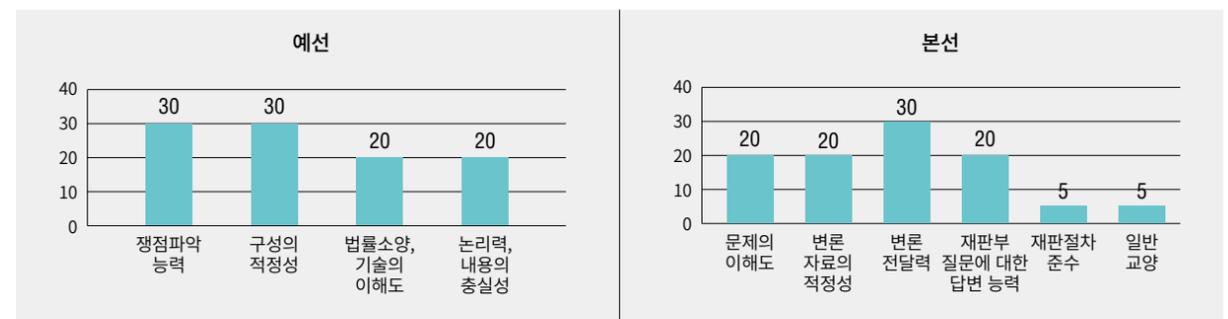
### ■ 참가자격 및 팀의 구성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2인 또는 3인으로 구성된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다만, 팀 구성원 3인은 동일 로스쿨에 재학중이지 않아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 ■ 경연 방식

예선(서면평가)	본대회(법정 경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지된 문제에 대한 군검사의견서, 피고인 측 변론요지서를 쌍방의 지위에서 모두 제출해야 함.</li> <li>서면심사 결과 상위 10개 팀 이내의 팀이 본대회에 진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대회 전 추첨을 통해 군검사 / 피고인측 팀을 정함</li> <li>경연시간: 35분</li> <li>경연방법: 주변론 → 재판부 질의·응답 → 최종변론</li> <li>주변론은 팀당 최대 10분 이내로 한 사람이 3분 이상, 2명이 나누어 변론해야 함.</li> </ul>

### ■ 평가항목당 배점 비율



※ '서면 형식 등 절차 준수의 적정성' 항목에 대한 평가는 배점에 따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감점제로 진행

제4회 대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초소침범, 상관명예훼손, 상관모욕 등과 관련한 현역 중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두고 법리를 다루는 사건이 제시됐다.

김재운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을 통해 “서면심사를 통과한 것만으로도 이미 우수한 실력이 입증된 것”이라며, “이번 대

회를 통해 예비 법조인으로서 군사법원, 군사형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연 결과 최우수 팀 겨루(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게는 국방부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이, 최우수 변론을 한 개인 오영서(겨루)에게는 대한변호사협회장상과 상금 100만 원 등이 각각 수여됐다.

#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우승팀 [ 겨루, 인하대 로스쿨 ]



**Q.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4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한 겨루 팀의 팀장 오영서입니다.

지난 9월부터 팀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해온 대회인데, 이렇게 좋은 결과로 돌아오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특히 이번 제4회 군사법변론경연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된 대회인 만큼, 감회가 더욱 남다른 듯합니다.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국방부 군사법원 및 여러 후원 기관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이번 대회에 함께해준 팀원들에게 고생 많았고 수상을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Q. 팀원 소개 및 대회에 참석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A.** 겨루 팀은 인하대학교 로스쿨 16기 재학생 오영서, 김철중, 문진수 3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처음엔 학교 게시판에 붙은 제4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공고문을 보고 군검사와 변호인 측이 나뉘어 자유변론경연을 펼친다는 소개에 흥미를 느껴 참가를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물론, 로스쿨에 재학 중인 지금은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지만 언젠가 졸업 후 필드에 나갔을 때를 고려하면 좋은 경험이 되겠다 싶기도 했어요. 또, 로스쿨에서는 따로 균형법을 배울 기회가 마땅치 않은데 이번 기회에 균형법도 알아보고자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철중, 문진수 팀원에게 같이 나가보지 않겠냐고 제안해봤는데 다들 흔쾌히 좋다고 해 함께 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Q. 팀명에 담긴 뜻은 무엇인가요?**

**A.** ‘겨루’는 순우리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겨루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겨루다’는 서로 버티어 승부를 다투는 의미

인데, 단순히 경쟁을 넘어서서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하며 정당당당하게 경쟁함으로써 함께 성장한다는 뜻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군사법 변론경연대회에서도 군검사 측과 변호인 측이 나뉘어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지만, 대회를 준비하며 서면을 주고 받는 등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단순한 싸움 상대로서가 아니라 같은 사안을 놓고 서로 다른 시각에서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를 나누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루’라는 팀명대로, 이번 대회 참가는 단순한 경쟁이 아닌 함께 정당당당하게 겨루면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Q. 이번 경연대회문제는 상관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군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군검사의 견서와 변호인의 변론 요지서,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서면심사에서는 각각 어떤 논리와 쟁점을 담아서 준비했는지 소개해주세요.**

**A.** 우선 상관모욕죄와 관련해, 군검사의 견서에서는 공연성과 관련해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관련 판례 법리 등을 제시한 반면, 변론요지서에서는 발언자와 상대방 사이 관계 등에 비추어 이러한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서 공연성을 부정했습니다.

또한 초소속범죄에 있어서 군검사 의견서에서는 고등군사법원의 관련 판례를 참고

하여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지 않았 음에도 피고인에게 초소침범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변론요지서에서는 피고인의 발 언에 따를 때 그러한 고의가 부정된다는 점을 통해 초소침범죄 성립이 부정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고인들의 진술에 있어서 그 것이 일반적인 경험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 지,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따져보기도 했습니다.

**Q. 서면심사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효과 적인가요?**

**A.** 같은 사건이지만 전혀 다른 입장에서 서면을 작성하는 만큼, 각각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부분, 상대방에서 쉽게 반박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포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련 하여 각종 판례의 법리를 숙지하고, 군사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군사법원에서 선고 된 판결들을 많이 접해보며 사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 있을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또한 각 사건들이 유기적으 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A사건으로부터 B사건에 대한 실마리를 얻는 점도 놓쳐서 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대회에 서 상관명예훼손죄의 참고인이 보복협박 죄의 피해자인 만큼, 이 부분을 소홀히 다 루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Q. 구두변론을 해야 하는 결선에서는 어 떤 전략을 세웠나요?**

**A.** 서면심사가 아닌 ‘구두변론’인 만큼 서 면심사 때와는 전략을 달리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변론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탄탄한 논리전개는 물론이고 우리 변호인 측에는 가장 유리하 면서 상대 군검사 측에게는 취약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제게는 몇 번을 봐서 익숙한 내용이어도 대회 당

일에 처음 접하는 분들께서는 낯선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하진 않은지 팀원들과 서로 체크해주고 강조해야 할 부분들에는 더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또 팀 내에서 한 쪽에 발언이 편중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발언 기회를 분배하는 부분도 신경썼습니 다.

**Q. 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A.** 대회를 준비할 당시 자주 이용하던 교 내 스터디룸이 가득 차 곤란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 학교 내에 비어 있던 탁 구장이 있어, 거기에라도 들어가서 대회 준비를 이어갔는데 탁구장 안에서 다 같이 노트북을 들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등을 논의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웃음).

**Q. 대회에 참가하면서 얻게 된 것은 무엇 이었으며, 제5회 대회에 출전하고자 하 는 학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평소에 로스쿨에서 군사법을 접할 기 회가 없는데, 제4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를 통해 직접 균형법 조문도 찾아보고 군 사법원 판례들을 읽어보며 군사법에도 흥 미를 느끼게 되었다는 점이 이번 대회 참 가의 가장 큰 수확일 것 같습니다. 또한 대 회를 준비하며 직접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것에 재미를 붙이면서 로스쿨 졸업 후의 미래에 더 큰 기대를 가질 수 있었고, 앞으 로도 열심히 나아가야겠다는 각오도 다졌 습니다. 무엇보다도 같이 고생한 팀원들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경험은 제게 있어서 로스쿨에서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 을 것 같습니다.

군사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낯설어하지 마 시고, 도전해서 과감하게 부딪쳐보고 또 치열하게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져보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202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별 원서접수 현황

접수기간: 2024. 9. 23.(월) 09:00~27.(금) 18:00

대학명	모 집 정 원							지 원 현 황							경 쟁 률							전년도 경쟁률
	가군			나군			합계	가군			나군			합계	가군			나군			합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강원대				37	3	40	40				183	14	197	197				4.95	4.67	4.93	4.93	5.75
건국대	37	3	40				40	134	12	146				146	3.62	4.00	3.65				3.65	3.48
경북대	55	5	60	56	4	60	120	256	30	286	255	18	273	559	4.65	6.00	4.77	4.55	4.50	4.55	4.66	6.10
경희대	55	5	60				60	279	25	304				304	5.07	5.00	5.07				5.07	4.67
고려대				111	9	120	120							374				3.05	3.89	3.12	3.12	3.10
동아대	37	3	40	37	3	40	80	606	35	641	620	35	655	1,296	16.38	11.67	16.03	16.76	11.67	16.38	16.20	10.55
부산대	55	5	60	56	4	60	120	222	30	252	254	32	286	538	4.04	6.00	4.20	4.54	8.00	4.77	4.48	4.31
서강대	18	2	20	19	1	20	40	192	16	208	245	7	252	460	10.67	8.00	10.40	12.89	7.00	12.60	11.50	11.25
서울대	139	11	150				150	373	49	422				422	2.68	4.45	2.81				2.81	2.49
서울시립대	45	5	50				50	205	33	238				238	4.56	6.60	4.76				4.76	4.10
성균관대				111	9	120	120							355				2.78	5.11	2.96	2.96	2.32
아주대	23	2	25	23	2	25	50	175	18	193	177	18	195	388	7.61	9.00	7.72	7.70	9.00	7.80	7.76	8.58
연세대				111	9	120	120							409				3.24	5.44	3.41	3.41	3.02
영남대	32	3	35	33	2	35	70	355	41	396	373	32	405	801	11.09	13.67	11.31	11.30	16.00	11.57	11.44	12.46
원광대	30		30	25	5	30	60	676		676	519	81	600	1,276	22.53		22.53	20.76	16.20	20.00	21.27	24.80
이화여대				92	8	100	100							280				2.74	3.50	2.80	2.80	2.76
인하대	21	4	25	25		25	50	149	38	187	225		225	412	7.10	9.50	7.48	9.00		9.00	8.24	6.20
전남대	51	9	60	60		60	120	201	55	256	245		245	501	3.94	6.11	4.27	4.08		4.08	4.18	4.38
전북대	37		37	37	6	43	80	214		214	214	23	237	451	5.78		5.78	5.78	3.83	5.51	5.64	7.08
제주대	18	2	20	19	1	20	40	170	20	190	200	10	210	400	9.44	10.00	9.50	10.53	10.00	10.50	10.00	7.68
중앙대	46	4	50				50	431	26	457				457	9.37	6.50	9.14				9.14	8.84
충남대	50		50	43	7	50	100	241		241	209	27	236	477	4.82		4.82	4.86	3.86	4.72	4.77	4.75
충북대	40		40	25	5	30	70	162		162	90	16	106	268	4.05		4.05	3.60	3.20	3.53	3.83	3.50
한국외대	46	4	50				50	203	26	229				229	4.41	6.50	4.58				4.58	4.30
한양대				93	7	100	100							254				2.30	5.71	2.54	2.54	2.01
합계	835	67	902	1,013	85	1,098	2,000	5,244	454	5,698	5,283	511	5,794	11,492	6.28	6.78	6.32	5.22	6.01	5.28	5.75	5.57

※ 경쟁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법학전문대학원 자체 집계 결과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법조 드라마 전성시대

올 한해 유독 많은 법조 드라마가 안방극장을 찾았다. 정의로운 법조인, 복수를 꿈꾸는 법조인, 나쁜 놈보다 더 나쁜 법조인. 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듯 드라마 속 법조인의 모습도 다양각색이다. 어떤 모습으로 그려졌든, 드라마는 법조인의 덕목 중 하나가 '정의(正義) 실현'이라는 한결같은 이야기를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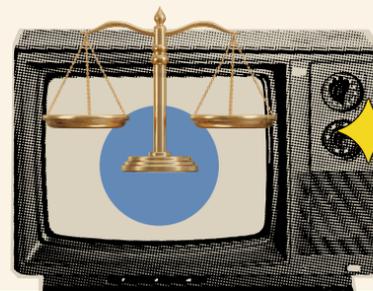
'이제부터 진짜 재판을 시작할게! 지옥으로!'

### 지옥에서 온 판사



판사는 공정한 인물로 여겨진다. 법을 수호하기에 사심보다는 증거와 원칙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린다. 그런데, 만약 악마가 판사의 몸에 깃들었다면? 그 악마는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까? <지옥에서 온 판사>는 죽은 판사의 몸에 빙의한 악마의 이야기다. 판타지에 가까운 세계관이지만, 다루는 사건만은 현실적이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 재벌 갑질사건과 같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범죄들이다. 2024년 런칭한 드라마 중 강력한 '사이다물'로 꼽히는 작품인 만큼, 죄인을 직접 처단하는 판사를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 **킬링포인트** : 우리나라에서는 결코 볼 수 없을 법한 판사 강빛나(박신혜)의 화려한 패션과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B급 CG
- **보러가기** : SBS, Wave, Disney



올곧은 신념과 정의로운 사명, 따뜻한 성품으로 모두에게 존경받는 판사가 있다. 어느 날 아들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그는 끝내 아들의 살인을 은폐하기에 이른다. 한편, 뜻하지 않은 사고로 아들을 잃은 권력자는 범인을 찾아내 자신만의 방식으로 처단하고자 한다. <유어 아너>는 자식을 위해 괴물이 되어버린 두 아버지의 모습을 그렸다. 제목인 '유어 아너(Your honor)'가 법정에서 법관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갖추는 표현인 '존경하는 재판장님'을 뜻하기에, 드라마의 함의는 한층 깊어진다.

- **킬링포인트** : 3년 만에 돌아온 연기 장인 김명민과 믿고 보는 배우 손현주의 연기 대결
- **보러가기** : Genie TV

내 아들이 죽었다. 내 아들이 죽었다.

### 유어아너



감추고 싶은 과거 적은 너인가 나인가

## 좋은 나 나쁜 동재



8년 전 드라마 덕후들의 심장을 뛰게 만든 작품이 있었으니, 바로 <비밀의 숲>이다. <좋은 나 나쁜 동재>는 <비밀의 숲>에서 제법 존재감이 컸던 검사 서동재를 주인공으로 한, 일명 비숲의 스피노프 드라마다. 극 중에서 검사 서동재는 선과 악,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스폰 검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승진하는 것. 그런 그의 앞에 지난날의 과오를 들춰내는 적수가 등장한다. 짠내 풀풀 풍기는 서동재는 과연 역대급 빌런을 물리치고 베테랑 검사로 거듭날 수 있을까.

- ✔ **킬링포인트** : 욕망 동재, 씩라 있네.
- 📺 **보러가기** : tvN, TVING



최고의 이혼 쇼를 보여주자

## 굿파트너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 중 이토록 고증이 잘 된 드라마가 있을까. 드라마 <굿파트너>의 리뷰에는 현실감 넘치는 법정씬, 사건 설정에 대한 호평이 가득하다. 그도 그럴 것이, 드라마의 작가가 이혼 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최유나 변호사이기 때문. 이혼이 천직인 스타변호사 차은경(장나라)과 이혼은 처음인 신입변호사 한유리(남지현)의 때론 차갑고 때론 뜨거운 에피소드는 시청률 20%에 달할 만큼 큰 인기를 얻었다.

- ✔ **킬링포인트** : 이혼전문 변호사가 쓴 진짜 이혼 스토리
- 📺 **보러가기** : SBS, Wave, Netflix



'취도 새도 모르게 이혼시켜 드립니다.'

## 끝내주는 해결사

남편에게 뒤통수를 뒤통 맞은 것도 부족해 위장이혼을 당하고 교도소까지 가게 된 변호사 김사라(이지아). 출소한 그녀의 목표는 '뺑'이다. 제 삶을 이렇게 만든 그놈을 뺑에 보내거나, 그놈 재산을 뺑으로 만들거나. 계획에 착수하기 위해 이혼전문 업체 '솔루션'을 차린다. 연수원 동기이자, 남몰래 사라를 짝사랑했던 변호사 동기준(강기영)이 솔루션에 합류하면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 **킬링포인트** : 연기인지 현실인지 헷갈리는 두 배우의 티키타카
- 📺 **보러가기** : TVING, Netflix

## ‘법률 교육 전문가’로서의 변호사 인생 2막

###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년차 변호사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 임주혜입니다.

현재 KBS 사사건건, MBN 프레스룸 live, YTN 등 다양한 방송에서 법 전문 패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공기관이나 대학교 등에서 생활 법률 특강을 하고 기업 대상의 법정 필수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 Q. 대기업 사내 변호사로 업무를 처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변호사 업무를 병행하는데 고충은 없었을까요?

고려대학교 로스쿨 3기로 졸업하고 바로 LG전자에 입사해 사내 변호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개인정보와 저작권 분야 업무를 맡아서 각종 자문과 국내외 소송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러다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와 가정을 이루는 시기가 겹치다 보니 저도 커리어와 결혼, 출산이라는 사이클을 맞닥뜨렸습니다. 제가 사내 변호사로 일을 시작한 첫해에 임신에 하게 되었는데 출산 예정일 3일 전까지 회사를 다니다 출산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입사 첫해에, 그리고 매년 성과에 따라 연봉 협상을 해야 하는 변호사가 임신부로서 업무 성과를 보여주려 하니 그 과정은 힘겨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늦은 회식 자리도 마다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더 많은 업무를 맡아 무리한 진행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임신한 상태에서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해서는 승산이 없다는 걸 곧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고의 성과를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억지로 늦게까지 회식 자리에 남아있거나 보여주 기식의 야근은 멈췄습니다. 그보다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다음 날 업무시간에 집중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외근이나 지방 출장 대신 사내 교육이나 발표를 맡았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로서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지요. 다행히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직 내에서 계약서를 잘 검토하고, 사내 교육 업무도 잘하는 변호사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출산 및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다음에는 좀 더 업무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Q. 이렇게 사내변호사로서 커리어를 탄탄하게 쌓아 오다가 법률 교육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법적인 문제가 생겨야만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변호사를 찾습니다. 그때마다 늘 안타깝다고 느낀 점은 너무 늦게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병으로 따지면 중증 상태를 지나 치료가 어려워진 단계와 마찬가지로요. 실제로 기초적인 법률 지식만 알았더라면 피할 수 있었는데 그 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후에야 변호사를 찾으면 사실 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거나 이미 피해가 커서 손쓸 방법이 없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가장 아쉬웠는데요. 처음부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처 방법이 없는지 변호사로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다양한 일 가운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송무 변호사나 국내외 법적 규제에 대해 검토하는 자문 변호사의 역할도 보람 있고 매력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고민 끝에 더 끌리는 분야를 발견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법률 교육 전문가’라는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 Q. 대기업 퇴사 후 법률 교육 전문가로 자리 잡기까지의 과정도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바로 안정적인 출발은 아니었습니다. 개업하고 초기에는 당연히 별다른 일이 없었죠.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전통적인 변호사 업무에서 벗어나 좀 더 업무 활동 범위를 넓힐 수는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법률 교육을 위한 강의안을 꾸준히 준비해 보거나,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스피치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해봤습니다. 또한 <유튜브 저작권 분쟁에 대처하는 35가지 기술>, <법 좀 아는 언니> 등의 책을 쓰면서 법률 지식의 다양한 확산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시도했습니다.

이런 준비 덕분에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법률 특강을 시작하게 되었고 강의의 입소문을 타면서 그 이후에는 청소년 법률 교육, 대기업 법정 필수 교육 등에도 참여하는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방송에서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법적 쟁점이나 새로운 법 개정 사항, 주요 판례들을 소개하는 법 전문 패널로서 법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률 교육 전문가로서의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 Q. 두 아이를 키우며 교육, 방송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려면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낼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만의 자기 관리 노하우가 있을까요?

먼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할 일을 하루 전에 미리 끝내 두려고 하죠. 맡은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미루면서 빈둥거리거나 고민할 시간에 집중해서 그 일을 빨리 완수해 버리고 남은 시간을 보너스처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나만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을 확보합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라고 정해 둡니다. 이 시간에 강의안을 만들고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원고 쓰는 작업을 합니다. 유명 강사들의 스피치를 연구하고, 글을 쓰는 시간이 당장 내 앞에 어떤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한두 시간씩만이라도 나만을 위한 시간에 투자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 실력과 자신감의 바탕이 단단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 Q.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를 듣고 싶습니다.

요즘 과학이나 인문학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 많은 강좌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에 비해 어쩌면 실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생존을 위한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 이야기는 전문가만 아는 영역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외시합니다. 법이야말로 나를 지키는데 가장 필요한 강력한 방패임에도 말이죠.

법률 교육은 우리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법을 어기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만약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한다면 어떻게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몰라서 간단하게 막을 수 있는 사항을 법적 분쟁까지 몰고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힘든 상황을 미리 해결하는 열쇠가 생활 속 법률 상식이라는 인식의 확장도 중요합니다. 저는 법이 왜 필요하고, 법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좀 더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률 교육에 더 매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생활에 밀접한 법률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올바른 메신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임주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위원  
서울시민대학 강사  
전 LG전자 법무팀 변호사

7월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법학교수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학과 법치주의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열렸으며,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의 교수들이 발제자 및 토론자로 초청됐다.

## [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공동 학술대회 ] 법학과 법치주의의 위기와 대응방안



학술대회에 참석한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관계자들

### <제주제> 법학의 위기와 제도적 극복방안

#### 제1발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법제 개선 방안

양천수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의 식민지화

가장 먼저 언급할 현실이자 문제는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과정을 식민지화했다는 것이다. 사법시험이 식민지로 전락했던 법과대학의 문제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되풀이되는 것이다. 시험과목과 비시험과목이 구별되면서 전자는 선택의 대상으로, 후자는 배제의 대상으로 규정됐다. 나아가 시험과목의 비중에 발맞추어 교과목의 우선순위가 선택 및 집중됐다.



##### 판례의 지배

이상적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모델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법학 지식보다는 법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법적 사고 능력보다는 지식이 그것도 학설보다는 판례 중심의 지식이 강조된다.

##### 실무의 지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무 교육이, 특히 법원이나 검찰, 경찰에 의해 이뤄지는 실무 교육이 현실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이들 기관이 주도하는 실무 교육은 현재 거의 필수과목처럼 운용되면서 그 결과 전문법학 과목이나 기초법학 과목 등이 학생들의 선택에서 불가피하게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제2발표 변호사시험의 올바른 방향과 이를 위한 변호사시험법제 개정 방안

이윤정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통합형 시험과목과 통합형 문항의 어색함

헌법과 행정법은 이론상 공통되는 공법원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처럼 공통되는 원리를 묻는 문제는 헌법 문제인지 행정법 문제인지가 애매할 뿐이고, 서로 구별되는 헌법 쟁점과 행정법 쟁점이 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사안은 상정하기가 어렵다. 쉽게 말해 헌법과 행정법의 통합은 화학적 통합이 아닌 물리적 통합이 되기 쉬운 것이다.



##### 선택형의 문제점

선택형은 로스쿨에서 9학점 이상을 이수해 졸업하고, 사례형과 기록형 답안을 평가받는 응시자들에 대해 굳이 중복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시험일 뿐 아니라 선택형 문제가 대부분 판결요지 문장이나 법조문을 그대로 옮긴 지문의 옳음/옳지 않음을 선택하는 문제여서 피상적인 지식의 확인에 불과하다.

##### 기록형의 문제점

출제 범위나 작성해야 할 서면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형사법 기록형에서도 보석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하거나 민사법 기록형에서 주주대표소송을 하게 하는 등으로 소위 불의타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는데,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가 작성하는 모든 서면의 종류가 출제 가능 범위에 있다는 것은 수험생에게 가혹할 뿐 아니라 출제 의도에 비취도 꼭 필요하지도 않다.





**토론 ① 홍대식 원장(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실무의 괴리가 심각했던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의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대안으로 선택됐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그와 연계된 변호사시험 제도는 법학과 실무의 다리놓기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법학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험을 초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송무에 한정된 실무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도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토론 ② 소병천 원장(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법학 과목은 '포함'이 아닌 '배제'의 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의 근저에는 과도하게 낮게 설정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라는 핵심적 문제가 있다. 전문법학의 경우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법률들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물론 장단점이 각각 있겠지만 전문영역에 대한 실질적 역량강화 차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토론 ③ 안성조 교수(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시대의 기초법학은 3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학생들이 반드시 듣고 이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질 만한 수업내용으로 짜여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수법의 개발 및 변화를 모색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



**토론 ④ 최광선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외부기관의 실무과목과는 별도로 변호사시험 기록 과목, 특히 법전문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각종 기록과목(민사기록, 형사기록, 공기록)은 나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민사기록의 경우 발표자가 지적하였듯이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변론주의 위반 등)가 있다. 사실 이런 문제는 현재의 소장 평가에서 벗어나 답변서, 준비서면, 반소장 등의 서면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다.



**토론 ⑤ 안정빈 교수(경남대학교)**

로스쿨 입시에 있어 민법, 형법, 헌법 등 기본 3법 지식만이라도 묻는다면 법학과 학부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법학과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 전공 학과에 대한 효용은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변호사시험을 3년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응시 기회를 줄 것이 아니라 4년제 법대 졸업생들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법학과와 로스쿨 모두 상생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제2주제> 법학전문대학원의 위기와 제도적 극복 방안**

**제3발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장석천 원장(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결원충원제도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상적 운영**

결원충원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 결원충원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각 법전문원에서는 지금은 사문화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해 편입학을 통해 결원을 내부에서 충원하려는 움직임이 생길 수 있다. 편입학제도 시행될 경우 지방·소규모 법전문원 학생들 중 수도권·대규모 법전문원으로의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법전문원 학사운영 전반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재정의 건전성**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기준이 고비용 구조이기도 할뿐더러, 평가기준 역시 법전문원에 고비용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법으로 정해진 교원 규모,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는 점 등 다양한 법정 사항이 모두 법전문원에게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준비생들의 요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2023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법학적성시험 응시자 13,193명 중 응답자 3,032명을 대상으로 결원충원제도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결원충원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92%(2,785명)로 압도적이었으며, 폐지해도 된다는 답변은 5%(156명)에 그쳤다.

**제4발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법제 개선 방안**

전학선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의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이라 법학전문대학원을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교육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는 다른 기관이 법학전문대학원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평가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11명 가운데 법학교수가 4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법학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에 있어서 실제 법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법학전문대학원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토론 ⑥ 박경철 원장(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법에서는 국가에게 법조인의 양성을 위해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제3조 제2항)에서 국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토론 ⑦ 송문호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당시에는 비법학과 학생 선발 할당이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15년이 지난 지금은 비법학사 할당제가 비현실적이며 불필요한 요소이다. 또한 출범 당시 LEET, 면접 등 법전문 입시에서 법학 질문을 엄격하게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평가 요소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토론 ⑧ 윤태영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는 1년 중 가장 바쁘고 중요한 입시 기간에 진행하므로 학교 행정은 거의 마비될 정도이다. 대부분 평가요소가 단기간마다 체크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7년, 10년 정도로 주기를 정하되, 미국처럼 입시나 수업에서의 문제점이 알려져 특정 문제나 개선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대한 중간 점검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학교에 주는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토론 ⑨ 박태신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제자는 결원보충제의 순기능을 근거로 시행령으로 매해 연장하는 방식이 아닌 법률로 결원보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자는 제안을 해 줬다. 발제자의 제안과 같이 법률로 결원보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면 결원보충제와 관련한 법적 논란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 ⑩ 장용근 교수(홍익대학교)**

변호사 수가 최근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전체 등록 변호사 수는 인구 만 명당 2013년 말 1.7명에서 2023년 말 3.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에게 법률서비스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이제는 국민의 생활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고, 이를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의사나 약사처럼 90% 이상의 합격생을 배출하도록 해야 한다.

※ 위 내용은 학술대회 자료집에서 발췌한 것으로, 전문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AKLS NEWS

2024  
VOL.54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66차 이사회 및 제72차 총회**



지난 10월 31일(목) 16시 법전문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6차 이사회 및 제72차 총회가 개최됐다. 19인의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 개정 △협의회 취업규칙 △협의회 실무위원회 구성 △2025년도 제1차·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영역위원장 구성안을 심의·의결했다.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동채점 가채점회의**

10월 23일(수)부터 법전문협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동채점 가채점회의가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채점위원들은 동일한 답안지 10매에 대해 각각 가채점한 후 채점 결과를 비교, 검토하고 채점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동채점 가채점회의는 그룹 간 평균 점수 편차 발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9년도부터 기본 과목(2021년도부터 국제거래법 추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엘박스 업무협약(MOU) 체결**



11월 5일(화) 법전문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법전문협의회와 주식회사 엘박스 간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 업무협약식은 홍대식 법전문협의회 이사장, 이진 엘박스 대표, 김유승 이사, 박수영 AI 리서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두 기관은 △미래 법조인을 위한 법률AI 커리큘럼 개발 및 교육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및 교수진의 법률AI 서비스 접근성 강화 △법률AI 서비스의 기초가 될 최신 법학 연구성과의 확산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신임 원장 취임**



<b>김재윤 원장</b>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b>송성섭 원장</b>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b>이재민 원장</b>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b>서보건 원장</b>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b>손영화 원장</b>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	---------------------------------	---------------------------------	---------------------------------	---------------------------------

(2024.6~9월 취임, 학교 가나다순)

법	과						
	인	문	학	의	길		



김용섭

에스앤엘(S&L) 파트너스 변호사·입법지원센터장, 전북대 로스쿨 명예교수

법률가와 의사, 역술가의 직업에는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석’이라는 중요한 작업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역할은 단순히 표면적인 텍스트나 증상, 데이터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그 이면에 있는 깊은 의미와 맥락을 읽어내는 것이다. 법률가는 법적 문구를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의사는 병의 징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역술가는 사주나 운세를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이 때문에 이 3분야의 직종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올바른 해석을 할 때 진정한 전문가(Professional)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과 인문학의 중요성**

법은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추구하며, 인문학은 인간의 삶과 가치를 지향한다. 법과 인문학은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 양자의 만남은 새로운 통찰과 시각을 전한다. 법률가는 단순히 협소한 법률 조문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과 삶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법은 사람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법은 무미건조한 조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인문학적 성찰은 법률가가 인간의 복잡한 본성에 접근하고, 법적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인문학은 단순히 문사철(文史哲), 다시말해 문학, 철학, 역사 등 전통적 학문을 넘어,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학문이다.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인간의 삶을 통찰하는 지혜를 제공한다. 법률가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지 못하면 심원하지 못하고 법률의 기계적 적용에 빠지게 된다. 그 결과 법의 본질적 역할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법률가에게 전문적 식견과 함께 인문학적 성찰과 소양이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인문학의 역할**

오늘날 인문학의 위기는 대학 내 인문학 전공자의 취업난과 그에 따른 사회적 평가의 약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시에 인문학 열풍은 인문적 통찰력을 겸비한 인재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다. 인문학은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드는 학문이며, 선비와 군자의 길을 탐구하는 참다운 학문이다. 수기치인(修己治人)과 수제치평(修齊治平)의 정신을 통해 법률가도 사회적 역할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격적 도야와 연찬을 꾸준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인문학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법과의 관계가 깊은 학문들이 있다. 예를 들어 문학은 인간의 감정과 도덕적 갈등을 다루며, 철학은 정의와 윤리를 탐구하고, 역사학은 과거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여 오늘날의 법적 문제에 대한 교훈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신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및 물리학까지도 인문학의 범주에 포함되면서, 법률가가 다루는 영역과 문제의 범위도 더욱 넓어지고 있다.

**법률가와 사회적 신뢰의 문제**

오늘날 법조인들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다. 하지만 지나치게 법률만을 강조하는 접근은 법의 도덕적 기초를 약화시킬 수 있다. 법률가 중 변호사는 법적 조력과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직업이지만, 법의 기계적 해석에만 의존할 경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AI 등 새로운 법조 환경의 변화 속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하락과 법률기초과목의 소홀로 인해 법률가의 깊이와 사회적 신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입법자가 국민을 위한 좋은 입법이 아니라 당파적 이유로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거나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올바른 법적 조언이 아닌 고소와 소송을 남발하도록 권유하거나,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와 공소권의 남용, 법관의 불공정한 판결과 재판지연이 일상화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법률가는 나쁜 이웃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문학적 성찰이 필수적이다.

**법률가로서의 인문학적 소양**

인문학적 소양이 결여된 법률가는 결국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없이 법만을 해석하는 메마른 법률가로 남게 된다. 법학은 기본적으로 실용적 학문이지만, 인문학은 인간의 존재와 삶의 본질에 대해 다루는 학문이다. 법률가는 인간의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직업인 만큼, 인문학을 통해 자신을 더욱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인문학의 튼실한 기초가 없이 법학에 모든 것을 거는 법률가는 황량한 대지에서 자라는 화초와 마찬가지로 할 것이다.

법률가는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삶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법률가가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법과 인문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된다.

법이 단순히 분쟁을 해결하는 도구로만 사용될 때, 법률가는 그 기능에만 머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문학을 통해 인간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때, 법률가는 단순히 법을 해석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길안내자(Wegweiser)가 될 수 있다.

딤	페	이	크	성	범	죄	
처	벌	에	는	,	가	해	자
특	정	의		문	제	가	
여	전	히		남	아	있	다



민고은

법률사무소 진서 변호사

디지털성범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성폭력범죄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특징은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피해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사진, 영상물이 온전히 삭제될 때까지 지속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합성을 위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기술의 발달로 허위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딤페이크’<sup>1)</sup> 영상 등)을 제작하는 것이 너무나 손쉬워진 지금, 딤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이하 ‘딤페이크 성범죄’)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딤페이크 성범죄의 중대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국회는 2024. 10. 16. 딤페이크 성범죄를 규정하고 있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개정하였고 위 법은 같은 날 시행되었다. 위와 같은 개정으로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딤페이크 영상 등 제작에 있어 기존에 반포 목적의 제작을 처벌하였던 것에서 제작 자체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딤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 유포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실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불법촬영물의 촬영, 유포의 법정형과 같도록 상향하였다. 그리고 기존에는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딤페이크 영상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 딤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하여 협박,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은 딤페이크 성범죄를 더욱 중하게 처벌하고, 기존에는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들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 개정이라고 생각하나, 여전히 디지털성범죄에서 가해자 특정의 어려움으로 결국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피해자가 경찰에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고소하는 경우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게시글 캡처본, 채팅창 캡처본은 존재하지만 행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자료는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존재한다. 실제 촬영한 촬영물이라면 촬영장소, 촬영시기 등으로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겠으나, 딤페이크 영상 등의 경우에는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조

차 찾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딤페이크 영상 등이 유통되는 사이트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면서 한국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위 본사에 행위자 아이디를 근거로 하여 가입자 인적사항과 접속 기록 등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은 위 본사에서 회신을 받은 자료로 행위자를 특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영어로 번역하고 이를 첨부서류로 하여 위 본사에 수사협조공문을 발송하는 형태로 외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요청을 한다. 이는 우리나라 법집행기관이 외국 정부를 거치지 않고 민간에 직접 요청하여 수사자료를 제공받는 방식이다. 그런데 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도메인이나 서버 주소지의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우리나라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은 어떠한 강제력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보니 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행위자의 가입정보 등 통신자료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은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를 회신할 것을 강제하기도 어렵다.

해외 본사에서 한국의 수사협조요청에 응해 관련 자료를 회신한다고 하더라도 회신 기한을 강제할 수 없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회신 받지 못하기도 한다. 글로벌 IT 기업이 접속 기록 등 데이터를 보관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90일로 알려져 있고, 범행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서 자료 회신을 받게 되면 범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진 자료를 회신 받지 못하기도 한다.

그렇다보니 아래와 같은 상황이 펼쳐지기도 한다.

[유명 활동가(ReSET), “불법합성범죄 ‘최신’ 동향 및 입법 제언”, 한국여성변호사회 딤페이크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토론회 발표자료, 2024. 9. 30., 25면]

“단체방에서 여성들은 철저히 사람이 아닌 ‘자료’로 거래된다. 가해자들은 사회가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분노하고 경각심을 느끼는 이 시점에도 “언론보도 기념 축하 선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공유한다. 잘 알려진 성착취물 ‘제작자’가 언론에 보도되자 이를 축하한다는 명목하에 또다시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전에도 가해자들은 자신의 범행 혹은 자신이 있는 성착취 단체방이 언론에 보도되면 “(피해자 이름)아 오빠 뉴스 났다”라며 조롱과 성취감을 보였지만, 이제는 그 ‘기념’으로 새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지경이다.”<sup>2)</sup>

이에 대해 형사사법공조절차를 활용하는 것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먼저, 형사사법공조절차와 관련하여 공조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2조 제1호)을 의미하고, 공조의 범위에는 ‘증거수집, 압수·수색·검증’이 포함된다(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5조 제4호). 형사사법공조절차를 활용할 경우 앞서 설명한 수사협조요청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국제조약에 근거하였다는 점에서 강제력이 있고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다는 장점<sup>3)</sup>, 수사협조요청시에는 가입자 정보와 트래픽 데이터와 같은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여 형사사법공조절차를 통해서는 통신내용까지도 회신 받을 수 있어 더욱 더 많은 정보를 회신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형사사법공조절차는 수사기관(경찰, 검찰), 법무부, 외교부를 거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요시간이 1년 이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글로벌 IT 기업이 접속 기록 등 데이터를 보관하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90일이라고 알려져 있어 데이터가 이미 삭제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사사법공조는 보관기간이 짧은 자료를 확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평가된다.<sup>4)</sup> 그리고 형사사법공조절차를 이용하여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형사사법공조를 시도한 후 자료를 회신 받을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 언제 다시 수사가 개시될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이에 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를 회신할 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만 존재한다면 수사협조요청의 방식으로 통신 자료를 회신 받는 방법에 대한 단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자료 회신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한국에 한국지사를 두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① 한국 수사기관이 한국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근거로 한국지사를 통해 수사협조요청을 하면 수사협조를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 및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과징금 부과 및 한국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제재조치에 대한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입법하는 것이 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1) 인공지능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를 합친 단어  
 2) 발표자료 기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3) 정대용·김성훈·김기범·이상진, “국제협력력을 통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2017, 54면.  
 4) 박다운, “외국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통신 자료 요청 방법과 형사법적 문제”, 형사정책연구 제32권 제1호, 2021, 170면

## 시험을 앞두고 불안해서 미칠 것 같다면



한 해가 저물고 있다. 가속도가 붙은 시간은 폭주 기관차처럼 변호사 시험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사정없이 덜컹거리는 열차 안에서 겨우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해보려는데, 갑자기 기내 방송이 흘러나온다. “아아. 기내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께 최종 게임의 규칙을 알려 드립니다. 모두 두 명씩 짝을 지어 주세요.” 수학여행에서 해봤던 짝짓기 게임을 떠올리며 낭만에 젖어 들리는 찰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말이 귀에 때려 박힌다. “마지막 게임에서는 둘 중 한 사람만 생존합니다. 살고 싶다면 짝꿍을 이기세요!” 오징어 게임도 울고 갈 긴장감에 등골이 서늘해진다.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이 50%대에서 머문 지 오래다. 로스쿨 생활로 이미 녹초가 되어 버린 수험생들은 이제 냉혹한 생존 규칙 앞에서 실신할 지경에 이르렀다.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심장이 쫄깃해지는데, 당사자의 심정이야 오죽하랴? 불안해서 미칠 것 같은 게 당연하다.

불안은 원래 생존을 위한 감정이다. 곳곳에 널린 위험을 탐지하고 알람을 울려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한다. 알람이 울리면 교감 신경계는 비상 체제에 돌입해서 언제든지 도망치거나 맞서 싸울 준비를 한다.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알람이 울려대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긴다. 스트레스 호르몬에 오래 노출됨으로써 면역력이 저하되고, 심혈관계 질환을 비롯한 각종 만성 질병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불안에 의한 수면 장애는 신체적인 대사에 교란을 가져오며 일상의 리듬을 깨뜨린다.

무엇보다도 불안이 수험생에게 치명적인 건, 인지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평소 주의력에 문제가 없던 사람도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는 과제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현상은 객

관적인 지능 검사에서도 나타난다. 별의별 잡념이 안개처럼 뿌옇게 머릿속에 끼여 있으니, 쉬운 문제인데도 덤벼거려서 틀리고 짧은 내용을 암기하는 데에도 곤란을 겪는다. 긴장감이 바짝 올라오면 생각도 영향을 받는다. 마치 새끼손톱만 한 작은 구멍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시야가 확 좁아진다. 그래서 사건을 다각도에서 조망하지 못하고 가장 극단적인 한 가지에만 매몰되고 만다.

불안을 완전히 제거하는 건 비현실적이고도 불필요하지만, 불안의 특성을 알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우리는 보통 미지의 세계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 확실히 정해진 일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후회는 남을 지어놓지 않는 일, 명확한 형체가 없어서 손에 잡히지 않는 일, 아직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는 일이 손에 땀을 쥐게 한다. 그래서 불안의 시제는 미래이다. 우리는 대개 “어떻게 될까 봐” 불안해한다. ‘어제 본 모의고사 점수가 낮아서 불안하다’라는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낮은 점수가 곧 미래의 점수로 굳어질 것만 같은 불안이 깔려 있다. 이때 예측 기능을 하는 우리의 전두엽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공함으로써 불안한 마음에 기름을 끼얹는다. 매 맞기 전이 가장 두렵고,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이 가장 불안한 이유이다.

그러나 안심해도 좋다. 이제부터 소개할 세 가지 요령을 기억하면, 불안에 잡아 먹히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불안의 내용을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자. 앞서 말했듯이 불안은 미지의 세계를 먹이로 삼는다. 이처럼 불확실한 불안에 언어라는 틀을 씌우면, 모호함이 주는 혼란은 줄어들고 정서적인 부담감도 감소한다.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당신이 예상하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안

녕, 불안>의 저자 커티스 창은 불안을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정의했다. 많은 이들이 재산을 잃을까 봐, 명성을 잃을까 봐, 건강을 잃을까 봐, 관계를 잃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통찰력 있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불안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어렵다면 다음 문장의 빈칸을 완성해 보자. “나는 ( )을 잃을까 봐 불안하다.”

둘째, 현재에 집중하자. 미래로 빼앗긴 정신을 되찾는 방법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물입은 불안을 잊게 만든다. 불안으로 인해 어딘가에 몰입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조금만 힘을 내어 10분이고 20분이고 일단 몰입하기 시작하면 금세 불안을 몰아낼 수 있다.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아득한 미래와 달리, 현재는 생생한 감각으로 시시각각 전달된다. 눈앞에 놓인 글자를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귓가에 맴도는 소리를 붙잡아 마음에 담아 보자. 펜을 권 손의 묵직한 압력과 의도한 바에 따라 획을 그려내는 팔의 움직임을 느껴보자. 펜촉과 종이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사각거림은 어떠한가? 이렇게 또렷하게 느껴지는 현재에만 초점을 두자.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당장 시작해라. 불안이 마음을 낚아채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을 단단히 붙들어라.

마지막으로 몸을 움직이자. 한 번 불안이 시작되면 온갖 걱정 근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생각에 완전히 잠식당할 수 있다. 그러는 동안 불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일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여야 한다. 잠시 일어나 스트레칭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하자. 식후에 가벼운 산책으로 몽롱한 정신을 깨워도 좋다. 좀 더 여력이 된다면 짬을 내어 유산소 운동을 하기 바란다. 유산소 운동은 근육의 긴장도

를 낮추고 활력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감 신경계의 경계를 풀어서 불안으로 인해 흐트러진 신체 리듬을 정상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20분의 유산소 운동만으로도 불안이 감소한다고 하며, 그 효험은 약물의 효과보다 빠르게 나타나서 몇 시간 동안이나 지속된다고 한다\*. 이렇게 좋은 특효약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매서운 현실에 수없이 눈물을 흘려 왔을 당신의 아픔을 안다. 하지만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지 않는가?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완주하자. 곧 밝아 올 새벽빛이 당신을 반가이 맞이할 것이다. 짧은 글로나마 남은 여정을 응원한다.



권예진

뉴스 상담 센터 대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출처: <불안할 땐 뇌과학>, 캐서린 피트먼·엘리자베스 칼 지음

## 희망과 연대의 가능성

### - 켄 로치의 영화 3부작



지금으로부터 약 11년 전쯤, 영국 영화감독 켄 로치Ken Loach는 당시 제작중이던 영화 지미스 홀Jimmy's Hall 이 자신의 은퇴작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1960년대부터 영국의 노동계급과 사회적 약자들을 주제로 다루었던 원로 감독의 나이는 당시 77세였다. 그러나 우리 영화 관객 입장에서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로치는 머지 않아 자신의 은퇴 선언을 번복하고, 다시 본업에 복귀했다. 그리고 그는 '지미스 홀' 이후 10년간 그의 영화인생 말년을 대표할 수 있는 걸작 세 편을 내놓았다. 그의 현대 영국과 노동계급에 대한 영화 세 편 『나, 다니엘 블레이크 I, Daniel Blake (2016)』, 『미안해요 리키 Sorry We Missed You (2019)』, 그리고 『나의 올드 오크 The Old Oak (2023)』는 로치의 사회의식이 영국 노동계급과 빈민들의 연대에서, 국제적인 차원의 약자들간의 연대로 외연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로치가 위 영화 세편(통틀어 '현대 영국 3부작'이라고 하고 싶다)을 제작할 당시 영국에서 일어났던 거대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2010년에 자유민주당과의 연립정권을 통해 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2008년 경제위기 당시 급격히 늘어난 재정적자를 줄이고 재정건정성을 회복하겠다는 명분을 들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강도 높은 긴축에 착수했다. 긴축정책은 곧 공무원의 감축, 교육·공공서비스·사회복지예산과 지방정부 예산의 삭감을 의미했다. 보수당 정부는 약 9만명에 달하는 중앙정부 공무원을 감축하였고, 2015년까지 공공서비스 지출을 357억 파운드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2010년 영국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출 규모가 1660억 파운드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5년 내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출의 5분의 1을 삭감하겠다는 뜻이었다. 게다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급여도 5년 내에 177억 파운드를 삭감하는 구



윤태인

연세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 4회에 합격하였습니다. 잘하는 건 없고, 가끔 마음가는 대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상 또한 마련했다. 의료와 보건 예산을 제외한 정부의 거의 모든 예산은 삭감되거나 동결되었다.

이러한 긴축정책은 재정건전성을 어느 정도 회복시켰다는 점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으나,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시련을 가져왔다. 2010년부터 영국 전역의 도서관 800곳이 폐쇄되었고, 잉글랜드 대학생들의 학비는 연간 3,250파운드에서 연간 9,000파운드로 인상되어 대규모 학생시위를 불러일으켰다. 긴축정책 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아동 빈곤률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상대적 빈곤 상태'하에 있는 아동의 수는 2012년 대비 2019년에 60만명 이상 증가했다. 경찰공무원 약 2만명의 감축은 자연스럽게 치안의 악화로 이어졌다. 각종 보조금의 감축 및 아동수당의 제한(보수당 정부는 아동수당 수급을 2자녀로 제한하였다)은 수많은 빈곤한 가정들에게 고통을 가져왔다.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10여년간의 강도 높은 긴축은 영국 전역에서 약 190,000명의 초과사망(excess deaths)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지역별, 젠더별 격차를 심화시켰다.

### # 나, 다니엘 블레이크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긴축으로 인해 피폐해진 영국 사회의 복지시스템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들을 짓누르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연대하고 보살피는지 보여준다. 뉴캐슬에 사는 59세의 목수 다니엘 블레이크는 심장마비를 겪은 뒤 더 이상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치의의 진단을 받고 질병수당을 신청하지만, 노동연금부가 시행한 기계적인 근로능력 평가 결과 여전히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받는다. 그는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지만, 컴퓨터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겪는다. 질병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그는 어쩔 수 없이 실업수당을 신청하지만, 실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직을 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인다.

다니엘은 복지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구직센터에 왔지만 불과 몇분 늦었다는 이유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싱글맘 케이티 모건과 친구가 된다. 다니엘과 케이티의 가족은 비록 둘 다 어려운 상황에도 서로를 도우며 연대한다. 천정부지로 오른 런던의 집값 때문에 뉴캐슬로 이주한 2자녀의 어머니 케이티는 무료급식소에서 나눠주는 음식으로 간신히 연명하고, 굶주림으로 인해 슈퍼마켓에서 음식을 훔치려다 들켜며, 심지어 먹고 살기 위해 매춘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다.

케이티의 처지, 그리고 일을 할 수 없는 건강상태임에도 구직을 해야 하는 자신의 상황에 분개한 다니엘은 구직센터 벽에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내가 굶어 죽기 전에 항고일을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낙서를 하고 1인시위를 하다 경찰에 연행된다. 이후 블레이크는 우울증에 빠져 자신이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집에 첩거하지만, 그동안 받은 친절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따뜻한 식사를 가져온 케이티의 딸 데이지 덕분에 다시 힘을 얻는다. 항고일이 정해지고, 당일 자신의 근로능력을 판정할 판사와 의사를 본 다니엘은 잔뜩 긴장하여 결국 화장실에서 심장마비를 겪고 죽는다. 다니엘이 항고일에서 남독하고자 했던, 영국의 복지시스템에 대한 통렬한 비판은 결국 그의 장례식의 추도사가 된다 (“나는 보험 번호 숫자도 화면 속 점도 아닙니다. 나는 한명의 인간입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로치의 영화들 중 전세계적으로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영화인 동시에, 2016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2017년 BAFTA 영국 영화상을 수상하며 그의 영화인생의 정점이 되었다. 영화의 비판 대상이 된 노동연금부와 보수당 정치인들은 영국의 복지체계는 영화에서 묘사된 내용과는 다르다며 로치를 비판했지만, 대중은 영화 속 다니엘 블레이크의 처지에 더욱 깊이 공감했다.

### # 미안해요 리키

『미안해요 리키』는 기그 경제(gig economy)로 널리 알려진, 플랫폼 노동의 그림자에 대한 사회고발이다. 그간 명목상으로는 자영업자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플랫폼기업의 관리를 받으며 택배 배달뿐 아니라 상하차 및 분류 작업까지 중노동에 시달린 택배 기사들이 사회문제가 되었던 우리나라의 관객 입장에서는 더욱 공감할만한 내용이다.

2008년 경제위기 당시 해고된 후 일용직을 전전하는 주인공 리키 터너와 그의 가족은 매일 힘겹게 일하면서도 빈곤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한다. “나는 항상 열심히 일했어요. 나는 단 한번도 복지혜택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라는 리키의 말처럼, 평생 성실히 일해왔지만 가난을 면

하지 못하는 그는 어느날 자영업 택배기사가 될 기회를 얻는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고용계약이 아니라 서비스 계약이고, 임금이 지급되는 대신 배송 수수료가 지급되며,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주이자 가맹점이 되는 형태이다.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는 택배 관리자 말로니의 말에 혹한 리키는 택배기사가 되기로 하며,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아내 애비를 설득하여 그녀의 중고차를 팔아 택배차량을 마련한다.

택배일은 리키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힘겹고 고되었다. 그는 항상 제한된 시간 내에 택배를 배송하라는 압박을 받으며, 배송이 조금이라도 늦거나, 고객이 서명을 거절하거나 조금의 실수라도 하면 회사의 경고와 함께 수수료에서 벌금이 차감된다. 가정 방문 간병인인 아내 애비는 차가 없기 때문에 운행시간이 불규칙적인 버스에 의존해야 하며,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한분 한분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줄어든다. 두 사람의 과중한 노동에 더해져, 아들 셉은 사춘기의 방황과 일탈을 시작한다. 리키는 위기로 치달는 가정을 추스리고 가족들과 함께 휴식하고자 말로니에게 잠시 휴가를 보내겠다고 하지만, 벌금을 내고 싶으면 쉬라는 말로니의 강압에 이기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택배 배송을 지속한다. 결국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경찰에 잡힌 셉과 리키는 크게 다투고 리키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던 자기 자신이 절대로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셉을 폭행한 뒤 눈물을 흘리며 후회한다.

다시 배송업무에 나선 리키는 어느 날 강도들에게 폭행당하고 물건도 빼앗긴다.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간 그에게 말로니는 전화를 걸어 폭행 과정에서 부서진 위치 추적기 상당 금액 1천 파운드를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분노한 애비는 말로니에게, 사실상 당신들에게 일거수일거족을 통제받는 남편이 도대체 어떻게 자영업자인지 따져 묻는다. 다음날 아침, 온몸이 다쳐 불편한 와중에도 또 돈을 벌기 위해 택배배송에 뛰어드는 리키를 향해 그의 가족은 제발 가지 말라고 울면서 애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에 나서야 하는 리키는 눈물을 흘리면서 택배 차량을 몰기 시작한다.

아무리 노동을 하고 현재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빈곤계층에 대한 담담한 시선, 그리고 그들에게 자영업자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환상을 제시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을 착취하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성찰은, 비록 『나, 다니엘 블레이크』만큼은 아니었지만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았다.

### # 나의 올드 오크

『나의 올드 오크』에서 로치의 관심은 영국 내 약자들의 연대에서, 전 세계적 차원의 약자들의 연대로 확대된다. 영화의 배경은 EU 탈퇴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던 2016년의 잉글랜드 북동부 더럼. 한때 자랑스러운 탄광촌이던 더럼은 1980년대 대처 정부의 폐광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



었다. 경제는 피해해졌고, 학교, 도서관, 주민센터 등 공동체의 명맥을 유지하던 시설들은 문을 닫았으며, 더럼의 주택은 외국 자본의 투기대상이 되었다. 폐쇄해진 공동체의 주민들이 모여서 신세를 한탄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주인공 TJ 발렌타인이 운영하는 낡은 펍 하나뿐. 이 부서진 공동체에 또 다른 부서진 공동체에서 온 시리아 출신 난민 가족들이 이주하면서 긴장이 시작된다. 이미 중앙정부의 소외와 공동체의 붕괴를 겪은 더럼 주민들은 시리아 난민들을 향해 저주와 야유를 퍼붓고, 그들이 한정된 자원을 먼저 뺏어간다고 우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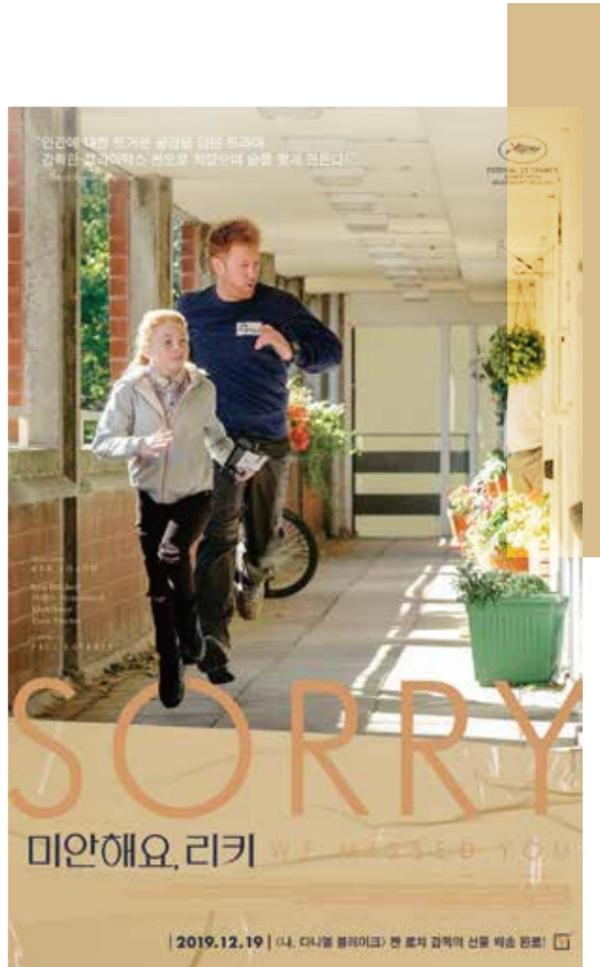
아내와 이혼하고 성인인 아들과도 멀어진 후 극도의 외로움과 우울을 겪는 TJ는, 난민 소녀 야라의 카메라 수리를 도우면서 그녀의 가족과 친분을 맺고,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게 된다. 이는 그가 자신의

펍 뒤의 굳게 닫힌 뒷방 공간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통해 드러난다. 더럼의 주민들은 TJ에게 난민들에 대한 반대 집회를 열기 위해서 뒷방을 사용할 것을 요청하지만, 그는 뒷방이 너무 낡아서 위험하다는 핑계를 들어 거절한다. 반면, 야라와 그의 친구인 자원봉사자 로라가 빈곤층 청소년과 난민 가족들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동체 식당 공간으로 뒷방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자, TJ는 처음에는 주저하지만 결국 적극적으로 수리하고 공동체 식당으로 탈바꿈시키는데 협조한다. 1984년 탄광파업 당시 광부들의 연대를 위한 역할을 수행했던 공간은, 이제는 민영화와 건축 아래서 굶주리는 사람들을 먹이는 연대의 공간으로 부활한다.

난민들과 연대하고자 하는 TJ는 기존 펍 고객들로부터 배신자 취급을 받는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그의 노력을 방해하고, 결국 이들의 방해로 뒷방은 배전이 완전히 고장나 더 이상 식당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TJ는 좌절하고, 야라는 시리아에 남아 생사가 불명했던 아버지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통곡한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 더럼의 주민들은 야라의 집앞에 나타나 조화를 건네고, 그녀의 가족을 포용하며 위로한다. 심지어 시리아 난민들을 백안시했던 TJ의 친구 찰리조차 조화를 건네는 모습을 보이며 영화는 인종과 종교의 편견을 넘은 연대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삶이 힘들 때 우리는 희망양을 찾아. 절대 위는 안보고 아래만 보면서. 우리보다 약자를 비난해. 언제나 그들을 탓해. 약자들의 얼굴에 낙인을 찍는게 더 쉬우니까”라는 TJ의 대사는 이 영화의 핵심이다. 정부의 민영화 정책과 건축으로 인해 공동체가 무너지고 빈곤해진 더럼 주민들과, 독재와 내전으로 피해해진 나라를 떠난 시리아 난민들은 둘 다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약자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TJ의 펍 고객으로 대표되는 더럼 주민들은 난민들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결말이 감동스럽게 보여주듯이, 약자들간의 연대는 차별과 불신을 극복한다.

켄 로치의 현대 영국 3부작은 건축과 EU 탈퇴 등 사회경제적 격변 속에서 고통받는 노동계급과 약자들을 그렸다. 그러나 『나, 다니엘 블레이크』와 『미안해요 리키』에서 파편화된 주인공들이 홀로 맞설 수 없는 거대한 구조 (약자를 소외시키는 사회안정망, 또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플랫폼) 앞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나의 올드 오크』에서는 억압적인 구조 아래서 약자들이 취할 수 있는 생존전략(연대)을 제시한다. 88세의 노장은 아마도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될 영화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야라의 대사를 통해 드러낸다. “내 친구는 희망을 갖는 건 어렵다고 했어요. 어쩌면 그 말에 맞아요. 하지만 내가 희망을 갖지 않으면, 내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을 거예요.”



#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실시



**시험기간** 2025.1.14.(화) ~ 1.18(토)  
※ 2025.1.16.(목)은 휴식일

**시험방법**  
가. 공법, 민사법, 형사법: 선택형 필기시험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논술형 필기시험  
다. 답안 작성 방식

- 선택형: 수기(手記) 방식(기존 방식과 동일)
- 컴퓨터용 사인펜을 이용하여 OMR 답안지에 표기
- 논술형: 컴퓨터 작성 방식(Computer Based Test, 이하 CBT) 또는 수기 방식
- CBT 방식: 시험용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답안 작성
- 수기 방식: 종이 답안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답안 작성(기존 방식과 동일)

※ 응시원서 접수 시 CBT 또는 수기 방식 중 선택

라. CBT 방식 주요사항

- 시험과목, 시험시간, 답안 분량, 출제, 채점은 기존과 동일하며, CBT 방식과 수기 방식 간에 차이가 없음.

**시험과목**

- 공법: 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
- 민사법: 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 형사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시험장 배정 기준**

- CBT 방식: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교에 시험장이 개설될 예정임. 원서접수 과정에서 선택한 희망 시험장(1~3지망)을 바탕으로 하여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험장을 배정하고, 시험장의 수용인원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희망하지 않는 시험장으로 배정될 수 있음.
- 수기방식: 전년도 수기 방식 응시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울의 1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교에 시험장이 개설될 예정.

**합격자 발표 일시 및 방법**  
가. 발표일시: 2025.4.25.(금)경  
나. 발표방법: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UIZ

### 1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납세의무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을 피고로 하여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소송으로서 법률관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지 않는다.
- ③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④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주대책의 종류에 따라 보장내용에 차등이 있는 이주대책을 시행하는 경우, 이주자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더 이익이 되는 내용의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다면 이주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다룰 수 있다.

### 2 甲주식회사가 乙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할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甲회사는 합병대가로 자신의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甲회사는 합병대가의 전부를 현금으로만 지급할 수도 있다.
- ④ 甲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乙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도 합병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⑤ 甲회사가 乙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甲회사의 주주총회 승인결의는 면제된다.

### 3 甲, 乙, 丙은 甲과 乙이 야간에 비어 있는 A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이때 丙이 집 밖에서 망을 보기로 공모한 후, 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 乙, 丙이 모두 동일 장소에 모여 직접 모의한 것이 아니라 순차적, 간접적으로 의사연락을 하였더라도 공동정범의 공동 가공의사가 인정된다.
- ② 甲, 乙, 丙이 합동범으로 평가받기 위해 필요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공동정범의 객관적 기여행위는 반드시 직접적으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일 필요는 없으므로 망을 본 丙 역시 특수(합동) 절도죄의 죄책을 진다.
- ④ 甲, 乙이 A의 집에 침입한 후 丙이 더 이상 망을 보지 않고 담배를 사러 갔다면 丙은 특수(합동)절도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 ⑤ 甲, 乙, 丙이 공모한 절취 범행 이후 A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자 甲과 乙이 A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집 밖에서 망을 보고 있던 丙은 甲과 乙의 상해범행에 대하여 죄책을 지지 않는다.

※ 본 문항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회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2차적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 문항 출처: 202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강원대학교  
http://law.kangwon.ac.kr



건국대학교  
http://lawschool.konkuk.ac.kr



경북대학교  
http://lawschool.knu.ac.kr



경희대학교  
http://law.khu.ac.kr



고려대학교  
http://kulawschool.korea.ac.kr



동아대학교  
http://law.donga.ac.kr



부산대학교  
http://law.pusan.ac.kr



서강대학교  
http://lawschool.sogang.ac.kr



서울대학교  
http://law.snu.ac.kr



서울시립대학교  
http://lawschool.uos.ac.kr



성균관대학교  
http://sls.skku.edu



아주대학교  
http://lawschool.ajou.ac.kr



연세대학교  
http://lawschool.yonsei.ac.kr



영남대학교  
https://www.yu.ac.kr/lawschool



원광대학교  
https://lawschool.wku.ac.kr



이화여자대학교  
http://lawschool.ewha.ac.kr



인하대학교  
http://ls.inha.ac.kr



전남대학교  
http://lawschool.jnu.ac.kr



전북대학교  
https://lawschool.jbnu.ac.kr



제주대학교  
https://lawschool.jejunu.ac.kr



중앙대학교  
http://lawschool.cau.ac.kr



충남대학교  
http://law.cnu.ac.kr



충북대학교  
https://lawschool.chungbuk.ac.kr



한국의국어대학교  
http://law.hufs.ac.kr



한양대학교  
http://lawschool.hanyang.ac.kr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